



내 곁에 든든한 디지털배움터

2021년 디지털배움터 이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차례

디지털배움터 사업 소개 8
격차와 소외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Chapter 1 디지털 역량 교육 감동 사례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배움터

- 01_ 고령층의 디지털 적응을 위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12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 02_ 농어업인, 소상공인을 위한 픽슬러, 라이브커머스 교육 16
“이번 도전을 통해 직접 판매도 해보고, 매출에 도움이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03_ 차별 없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디지털 교육 20
“보이지 않는 우리도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 04_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24
“스마트폰으로 재난지원금도 쉽게 신청하고, 디지털 마케팅으로 매출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 05_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새 출발을 위해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비점포형 창업 과정 28
“디지털 시대의 비대면 창업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이 희망을 키웠어요.”
- 06_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대상 디지털배움터 체험존 32
“한국에 온 뒤로 이렇게 활기 차게 일하는 건 처음이에요.”
- 07_ 지역 돌봄센터 아동과 함께 신기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교육 36
“엄마, 나 오늘 코딩 배웠다! 친구들이랑 로봇도 만들었어, 진짜 신기해!”
- 08_ 상인들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시장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40
“이제는 내 나이 또래에서 내가 핸드폰 제일 잘할걸요?”

- 09_ 우리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 코로나19 극복, 우리가 할 수 있다! 44
“백신 예약? 키오스크 주문? 나도 할 수 있지!”
- 10_ 이제 디지털 바다에 뛰어들 시간! 제주 해녀 대상 스마트폰 기초 교육 48
“아유, 물질로 자식들 키우느라 그런 거 할 줄 몰랐죠.”

Chapter 2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전국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

- 지역별 우수 사례 지도 54
- 01_ 서울1 :: 제1회 어르신 디지털 경진대회 56
“이번 기회로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 02_ 서울2 :: 자원봉사 활동을 돕는 따뜻한 디지털 마케팅 58
“필요한 자료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 03_ 서울3 :: 어르신을 위한 AI 스피커 방문 교육 60
“외롭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디지털 교육이 삶의 활력이 되어 주네요.”
- 04_ 부산1 :: 중장년 구직자 면접 특강 62
“전국의 아빠들 힘내세요!”
- 05_ 부산2 :: 장애인 특화 취업 연계 심화 과정 64
“저만의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싶어요.”
- 06_ 부산3 :: 디지털 리터러시 키우기와 키오스크 활용 66
“나도 핸드폰으로 기차표 예매할 줄 알아요.”
- 07_ 대구1 ::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 68
“바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 08_ 대구2 :: 장애 학생을 위한 행복 코딩 70
“장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세계 적응을 응원합니다.”

09_ 대구3 :: 다문화 주민 대상 온라인 창업 교육 72

"제가 만든 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됐어요."

10_ 인천1 :: 파이썬을 이용하여 게임 만들기 74

"마치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파이썬을 알게 되었습니다."

11_ 인천2 ::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AR/VR 세상! 76

"이렇게 재미있는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에요!"

12_ 인천3 :: 섬마을 주민들 스마트폰 완전 정복 78

"전화만 썼는데 다양한 기능을 배워서 좋아요."

13_ 광주1 :: 코로나19 시대, 랜선 차례 지내기 80

"랜선 차례 지내기,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안전한 명절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_ 광주2 ::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 나만의 블로그 만들기 82

"내 일과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15_ 광주3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여행 계획 세우기 84

"이제야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16_ 대전1 :: 경력 단절 여성들, 쇼핑물 창업하다! 86

"온라인 쇼핑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17_ 대전2 :: 아이들의 창의력을 만나다, 코딩 로봇 88

"내가 코딩한 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다음 시간이 더 기대돼요!"

18_ 대전3 :: 3D 펜으로 세상을 그리다! 90

"이거 유튜브가 썼던 3D 펜 맞죠?"

19_ 울산1 :: 스마트폰으로 당근마켓 이용하기 92

"'당근'으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_ 울산2 :: 슬기로운 울산페이 사용법 94

"QR코드로 쓰는 울산페이, 효자가 따로 없네!"

21_ 울산3 :: 다문화 여성과 함께 디지털 문턱 낮추기 96

"한국어로 알아 가는 디지털 세상!"

22_ 세종1 :: 메타버스로 즐기는 빅데이터 98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교실의 학생이 되었어요."

23_ 세종2 :: 스마트폰 어플 이용 정부24 100

"이제 동사무소 안 가도 되겠네!"

24_ 세종3 :: 3D 펜으로 미니 윗놀이 만들기 102

"3D 펜으로 집도 짓고, 차도 만들 거예요!"

25_ 경기1 :: 기초 중 활용, EBS 활용 온라인 교육 104

"학교에서 화상 수업을 할 때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26_ 경기2 :: 게더타운으로 추석 보내기 106

"너무 재미있어서 쉬는 시간에도 게더타운에서 놀았어요!"

27_ 경기3 :: 스마트폰과 안성사랑카드 사용하기 108

"파마하러 왔다가 배우고 갑니다. 옆에서 듣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28_ 강원1 :: 북한이탈주민 스마트폰 기초 활용 110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곳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9_ 강원2 :: 3D 펜으로 작품 만들기 112

"3D 펜, 꼭 써보고 싶었어요!"

30_ 강원3 :: 음식점 및 카페에서 키오스크 활용 114

"키오스크 주문으로 친구들에게 한턱 내겠습니다."

31_ 충북1 :: 3D 펜으로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만들기 116

"3D 펜으로 동화 속 과자집을 만들었어요."

32_ 충북2 :: 스마트하게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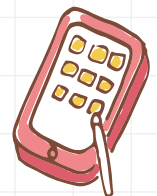
"거래 노하우까지 알려주시니,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33_ 충북3 :: 줌(Zoom)으로 화상 회의 운용하기 120

"배운 내용을 복습해서 줌(Zoom)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34_ 충남1 :: 신나는 코딩 드론 체험! 122

"코딩과 드론, 평소 해볼 수 없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35_ 충남2 :: 코로나 극복 스마트한 건강 관리 124

“잔여 백신 예약하는 방법을 자식들한테 알려주려고요.”

36_ 충남3 :: 키오스크 세상 속으로 126

“기계만 보면 자리를 피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7_ 전북1 :: 새로운 꿈을 위해! 드론의 이해와 활용 128

“드론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38_ 전북2 :: 폰으로 쉽게 찾는 일자리 130

“앱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39_ 전북3 :: 소상공인 PC 영상 제작 파워디렉터 132

“영상 제작은 전문가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40_ 전남1 :: 유튜브 홍보 전략 익히기 134

“등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1_ 전남2 :: 시장 상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136

“시장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교실!”

42_ 전남3 :: 언제나 열려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 138

“헬프데스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43_ 경북1 :: 고령 운전자를 위한 디지털 교통 안전 교육 140

“처음 들어보는 ‘인강’,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44_ 경북2 ::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타자 기초 교육 142

“배우면 배울수록 자식들과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45_ 경북3 :: 더 넓은 세상으로! 인터넷 초보 탈출 144

“클릭하는 제 손이 다 기특하네요.”

46_ 경남1 :: 찾아가는 디지털 버스 146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디지털 버스”

47_ 경남2 :: 디지털 적응 발판을 위한 다문화 여성 문화 발표회 148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나’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48_ 경남3 :: 섬마을 코딩 교육 150

“코딩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49_ 제주1 :: 세상을 바꾸는 가상 현실, 메타버스 VR 제주 관광 체험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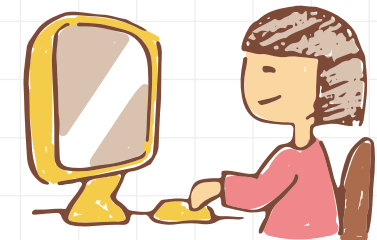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가상 세계를 경험하다.”

50_ 제주2 :: 이곳이 바로, 스마트 아일랜드 154

“매일 매일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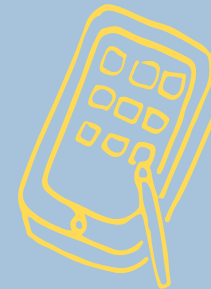
51_ 제주3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매출 쑥쑥! 156

“온라인 주문이 150건이나 들어왔어요!”



디지털배움터 사업 소개

**격차와 소외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전자 기기 및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생활 양식의 빠른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역량이 낮은 국민들은 생활 속 불편함을 더 많이 체감하게 되었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디지털 세상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줄 ‘21년도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 격차와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고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 지역, 전 연령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으로,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겪어 본 적 없는 재난 속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인원, 교육 만족도 등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센터, 도서관, 마을회관 등 지역 주민이 찾기 쉽고 가기 쉬운 장소에 디지털배움터 1,000여 곳을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체와 215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고령층, 장애인 등 지역 주민 60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디지털 인재 4,000여 명을 디지털배움터의 강사와 서포터즈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디지털 시니어 인턴십’을 운영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넘어 일자리와 사회 활동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한 사업 추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방문,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중단 없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디지털 역량 교육 공통 기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아울러 17개 시도 지자체와 연계하여, 실시간 교육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 대위기를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온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디지털배움터!” 앞으로도 17개 광역자치체, 교육 전문기업, 강사와 서포터즈를 포함한 전 국민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속,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역량 인프라를 확장해 디지털 선진 국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Chapter
1

디지털 역량 교육 감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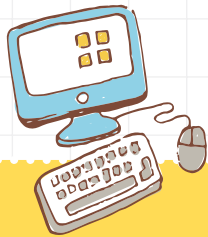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배움터

고령층, 농어업인, 소상공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정, 돌봄 아동,
제주 해녀와 같은 특정 소외 계층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디지털배움터가 장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적응을 위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1

살아온 인생 경험의 토대에 디지털 역량 교육이 더해진다.
새로운 활동 영역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제2의 청춘 개척의 꿈!



○ 사례 개요

노인인력개발원의 인턴십 사업과 연계·협력하여 배움터 교육
이수생 중 전국 172여 명의 어르신에게 배움터 인턴 일자리 제공

○ 사례 내용

디지털 교육과 연계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디지털 배움터 교육 및
헬프데스크 보조, 배움터 홍보 지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디지털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디지털 홍보 대사가 될 수가 있나요?” 교
육에 참여한 한00 교육생이 무척 낯설어하며 말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강사의 말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알 때
까지 몇 번이고 질문해도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편했
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뿐만 아니라 AI 로봇 사용법까지, 강사들의 차분하고 다정한 진
행으로 교육생들은 점차 용기를 얻었다. 부산시과 수원시의 시니어들은 디지
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부산시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담긴 부산 홍보 게시물을 제작했다. 시니어들은 스스로 부산시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며 여러 세대들과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65세 이상 250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인공지능 음성 인식 서비스를 시작하여 시로봇이 말벗이 되어 주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 등에 신고해 주는 케어 서비스를 진행했다. 특히 독거 노인 커뮤니티인 카네이션하우스를 중심으로 65세 고령층 대상, 대면형 디지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였다.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나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쓸모가 없나 하는 생각에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이00 교육생의 손을 강사와 서포터즈는 따뜻하게 맞잡았다. 그리고 얼마 뒤, 이00 교육생은 설레는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했다.

“강사님! 제가 올린 달맞이고개 사진에 좋아요 눌렀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에 대해 갈급을 느끼던 시니어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교육생 소감

임00 (62세)

시니어 디지털 서포터즈단으로 일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서로 회의해서 할 일을 나누고,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00 (73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배움터에서 자세히 배우고, 또 다른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주는 일이 참 보람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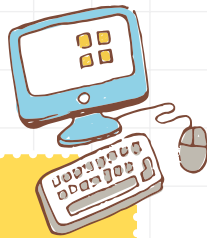


“몰라서 답답했던 것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배우니까 좋아요.”

농어업인, 소상공인을 위한 픽슬리, 라이브커머스 교육

2

농어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꼭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통한 정보화 능력 배양과 농가 소득 증대!



○ 사례 개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물론 농업인들에게까지 타격이 온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매체, 유통망 등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교육 필요

○ 사례 내용

농어업인 대상 라이브 특강을 통해 미디어 언론 매체 확대, “농촌도 ‘라이브 커머스’ 새로운 도전”이 전주 SBS방송에 소개되어 결과적으로 농어업인 교육생 사과 농장 80톤이 한 달만에 완판되는 성공적인 사례



“이번 도전을 통해 직접 판매도 해 보고, 매출에 도움이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장사를 할 때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해야 한다는데, 내가 그걸 배울 시간이 있어야죠.”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매여 따로 시간을 내 디지털 교육을 받기 어렵다.

“애들한테 물어봐도 뭐, 잠깐뿐이지. 계속 물어보면 혼나요.”라고 말하는 은00 교육생의 말에 서포터즈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이번에 아주 제대로 알려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모든 산업군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있지만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대다수 많은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시름은 유난히 깊다. 온라인 판로나 마케팅에 관심을 쏟을 여력과 기회가 부

강사 소감
함기훈(김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고, 지역방송 JTV까지 방송되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서포터즈 소감
윤은숙(김제)



방송에 익숙한 모습들이 나오니 보람되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교육생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디지털 배움터의 픽슬러, 라이브커머스 교육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주었다.

픽슬러는 간단한 활용으로 명함이나 주문 감사문, 스티커, 쿠폰과 같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제작해서 인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은 “이걸 배우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에 홍보할 수 있대요!”라며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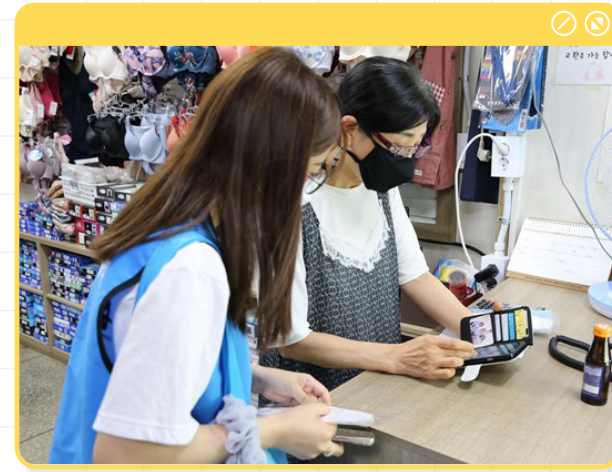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사진 촬영 기법 등 직접 재배한 상품에 대한 디지털 홍보 전략은 물론, 디지털

배움터의 지원으로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커머스를 활용해 새로운 유통 활로를 개척했다.

“이제 간단한 컴퓨터 작업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전단지도 만들고, 상품도 온라인에 올리고!”

교육을 마친 최00 교육생의 표정은 처음보다 한층 밝아졌다.

윤은숙 서포터즈는 “최근 농어업 상품의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만이 아닌 라이브커머스로 확대됨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어업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라이브커머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디지털배움터가 앞장서고 있다.



“소상공인도 온라인 홍보, 새로운 도전!”

교육생 소감

최00 (52세)

오늘 도전을 통해, 직접 판매도 해 보고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은00 (59세)

시간에 쫓겨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 평소에 알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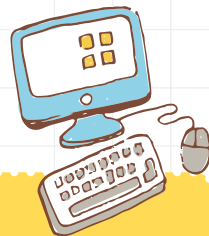
강사 / 서포터즈

함기훈 / 윤은숙

차별 없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디지털 교육

3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교육 차별 해소!



○ 사례 개요

디지털 교육 욕구가 있으나 전문 강사의 부재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경력 15년차 센스리더 전문 디지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장애인의 기본 교육권 지원

○ 사례 내용

거동이 불편한 60대 시각장애인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통해 센스리더 활용,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 장애인 교육 차별 해소



“보이지 않는 우리도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요즘에 병원에 가도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또 기차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약해야 하고. 세상은 더 편리해졌다지만 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어요.”

이옥란 강사가 만난 시각장애인 교육생은 그동안의 불편에 대해 한참을 얘기했다. 그 불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지극히 일상적이어서 더 안타까운 일들이었다.

“요즘 은행 일도 스마트폰으로 하지요? 그래서 동네에 제가 다니던 은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편해도 더 멀리 가야 해요.”라는 김00의 교육생의 말에 김옥란 강사는 시각장애인 디지털 교육에 더 큰 사명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옥란 강사는 더 많

은 시각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디지털 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처음에는 센스리더를 활용하는 것조차 낯설고 힘들어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교육생들을 대할 때마다 이옥란 강사의 마음도 더욱 뜨거워졌다고 한다.

“센스리더에서 읽어 주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하나 다운로드와 활용을 해가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보며 교육의 보람을 느끼고 매일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됐다. 교육생들은 점차 사진 촬영과 편집도 배우고, 컴퓨터 기초도 다질 수 있었다.”며 이옥란 강사는 교육 후기를 밝혔다.

교육생 소감

이00 (42세)

저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로당 외 여러 곳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배움터의 도움으로 건강 자료를 스스로 찾아 볼 수 있도록 방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00 (39세)

직접 찾아와 궁금하던 것들을 알려주셔서 편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강사님이 먼저 무엇이 가장 불편했는지 물어보시고, 그 점을 중심으로 알려주셔서 실생활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 ‘소외 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구호는 이곳저곳에서 번지지만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장애인을 위한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쉬운 디지털 접근권을 꿈꾸는 디지털배움터의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는 교육이었다.



“평소 답답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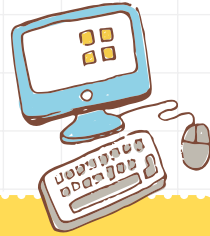
강사

이옥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4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다!



○ 사례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인해 폐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약의 기회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 제공 교육 추진

○ 사례 내용

홍보 활동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신청법 교육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스마트폰으로 재난지원금도 쉽게 신청하고,
디지털 마케팅으로 매출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헤어샵을 운영하는 70대 김00 교육생은 “누가 미용실에 직접 찾아와 정부 지
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났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제는 밖에서 지인들을 만날 때 QR 인증도 빨리 쉼 수 있겠어요!” 하며 기뻐
하는 교육생들을 보며 강사와 서포터즈의 보람이 더욱 커졌다.

지속되는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활기와 희망을 잃
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백신 접종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끝
이 보이지 않아요. 힘을 내보자 싶다가도 더 절망하게 돼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난 김은영 강사는 처음에는 쉽게 위로의 말도 전하기 어

려웠다고 한다. 그래도 차분히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판매와 홍보 등의 정보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활용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과 다양한 기능을 자세히 안내하고, 정부지원금,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확인 등 온라인 인증시 필요한 부분의 학습을 도왔다.

서울시 스마트폰 설정과 필수 앱 완전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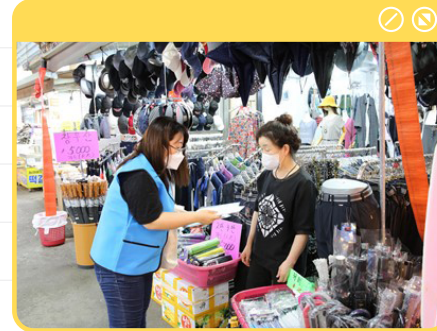
정부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도왔다.

경기도 우리 동네 지역 화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종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의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해가 어려운 경우 반복 활용 가능한 학습 동영상을 통해 교육생의 눈높이를 맞췄다.

김단비 강사는 “체험 후에도 평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쭙 보셔서 평소 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기 부끄럽기도 했는데,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육생 소감

김00 (59세)

디지털배움터에서 이렇게 시장에 직접 나와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번에는 일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신청 방법을 몰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받았거든요.

정00 (61세)

손님들 출입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서 불편했는데, 휴대폰을 흔들어서 QR코드 나오게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백신 접종 증명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니 정말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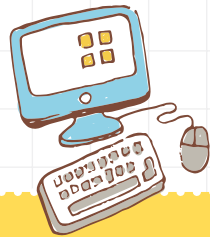


(서울) 강사 / 서포터즈 김은영 / 김민희
(경기) 강사 / 서포터즈 김단비 / 이은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새 출발을 위해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비점포형 창업 과정

5

막연한 두려움에서 희망이 담긴 창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 인생 2막을 디지털배움터에서 시작하다



○ 사례 개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새롭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기반 마련

○ 사례 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기호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판매 아이템 선정과 온라인 창업 과정 등을 체험하는 교육 추진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디지털 시대의 비대면 창업 통해 희망을 키웠어요.”

“경력 단절이 오래될수록 사회에 나가지가
어려워요. 자신감도 많이 잃고요.”
김성진 강사가 만난 경력 단절 여성들은 한
결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는 것이 이 교
육의 목적이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
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이번 교육의 커리큘
럼을 알차게 채웠다.”는 김성진 강사의 말
을 통해 그의 마음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경기 지역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이번

강사 소감
김성진(경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
품이 무엇인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
품은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를 스
스로 알아보고,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여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창업 프로세
스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자
리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생이 희
망을 갖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서포터즈 소감
이예진(경기)

처음 해 보는 서포터즈라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생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이어서, 저에게도 교육생 분들에게도 매 시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빅데이터를 통해 요즘 무엇이 팔리고,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은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어떤 창업 과정보다 디지털배움터의 교육 과정이 깊이 있고, 실제적이며,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꼭 한 번은 들어야 할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교육

생들의 후기에 교육을 진행한 강사와 서포터즈의 열의와 보람이 더욱 커졌다. “교육생들은 교육이 끝나고도 흠어지지 않고 있어요. 단독방에 모여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계속 활발히 교류하고 있지요.”

박00 교육생은 이번 교육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생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 창업을 한 교육생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언젠가는 배워야지...” 하며 망설이던 온라인 창업 과정을 빠르게, 집중해서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온라인 창업의 성공적인 방향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꾸러졌다. 수강을 마친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디지털배움터 참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느낀 막연한 두려움이 희망으로 변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편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좀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쇼핑몰을 열면, 배운 걸 잘 실천했는지 꼭 보러 오세요!” 라고 후기를 전하는 교육생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디지털배움터는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

교육생 소감

박00 (48세)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애견용품몰)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SNS 마케팅을 어떻게 연동하는지 등등 매 수업마다 새롭고 중요한 것들을 배우니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후 사업을 확장하여 다른 용품도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00 (56세)

직장 생활을 하다 조기 은퇴를 해서 50대에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문성과 업계 지식을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00 (51세)

저는 쇼핑몰 운영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대로 배워서 시작한 것이 아닌 주변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시도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해 보다 보니 재미있기도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면서 CS 처리나 주문관리,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빅데이터 창업 과정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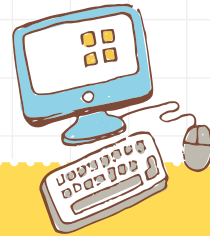
강사 / 서포터즈

김성진 / 이예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대상 디지털배움터 체험존

6

낯선 나라에서의 디지털 세상도 이젠 무섭지 않아요!



○ 사례 개요

다문화 가정도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 마련 필요

○ 사례 내용

외국어가 가능한 배움터 강사들을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다문화 교육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대상 COOV 앱 활용법,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해남 소통넷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수에 발맞춰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배움터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그중 이순희 강사가 만난 수메이 씨의 사연은 각별했다.

“저는 중국 칭다오에서 왔어요. 중국에서는 탄탄한 직업도 있었지만 남편을 만나 퇴사 후 중국을 떠나왔지요. 2015년 해남군에 정착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어를 익히는 것도 어려웠지만,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지난 일을 떠올리던 수메이 씨는 최근 디지털배움터의 서포터즈로 참여한 일이 무척이나 소중한다고 이야기했다.

서포터즈 소감
유정아(전남)



코로나19 이전에는 영어 강사로 일을 했지만 작년부터 일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월급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 행복합니다.

“디지털배움터 서포터즈로 채용되어 중국에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던 역량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시부모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적극 지지해 주셔서 기쁨이 두 배예요!” 수메이 씨는 무척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수메이 씨는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에서

스마트폰 활용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도왔다.

“중국에서 온 뒤로 이렇게 활기 넘치게 일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수메이가 즐거워하니 집안 분위기도 더 밝아졌어요.”라며 수메이 씨의 시아버지도 기쁜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유정아 씨는 필리핀 초등학교 영어교사였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1996년 해남군에 정착하고 한국 이름을 갖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어 강사 일이 줄어든 차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 만족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강사 소감
이순희(전남)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역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당연히 살아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수메이 씨와 유정아 씨를 서포터즈로 채용해 주신 TMD 교육그룹에 감사드립니다.

이 둘을 지켜본 이순희 강사는 “지금은 지구촌이 세계화되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문화권에 살고 있기에 우리 사회도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다문화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를 익히

고 여러 관계 속에서 곳곳이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수메이 씨와 유정아 씨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이주 여성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수메이 씨와 유정아 씨를 디지털배움터 서포터즈로 채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여성에게 좋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준 디지털배움터 사업에 감사드린다”고 이은아 강사도 소감을 밝혔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도 다양한 민족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디지털배움터는 이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가 있어서 다문화 여성에게도 편견 없이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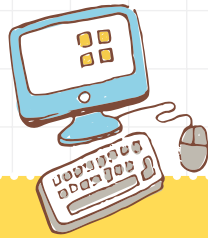
강사
서포터즈

이순희, 이은아
수메이, 유정아

지역 돌봄센터 아동과 함께 신기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교육

7

지역 돌봄센터의 아동과 함께 코딩을 배우고 로봇을 만들며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게 하다!



○ 사례 개요

돌봄센터의 장애 아동, 맞벌이/편부모 가정 아동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

○ 사례 내용

지역 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센터 내 발달 장애 아동 및 맞벌이/편부모 아이들에게 코딩 로봇 제작 및 작동 방법 교육



“엄마, 나 오늘 코딩 배웠다!
친구들이랑 로봇도 만들었어, 진짜 신기해!”

돌봄센터로 아이들이 씩씩하게 들어온다.
“선생님, 저 오늘만 기다렸어요. 빨리 로봇
만들기 알려주세요!” 교육에 참가한 정00
어린이는 돌봄센터에 오는 날만 손꼽아 기
다린다고 조경남 강사에게 밝게 웃으며 말
했다. 아이들은 코딩 프로그램에도 무척 흥
미와 관심을 보였다.

“집에 가서 동생한테 배운 거 다 자랑해요. 유치원 동생도 같이 오고 싶다고 했
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작은 도서관에서 만난 이00 어린이는 코딩을 배
운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장애를 가
진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졌다.

강사 소감
조경남(대전)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빨리 다음 시간
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아이
들의 흥미와 호기심이 정말 대단했고, 이
수업을 기획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시 창의 로봇 만들기



비장애 아이와 발달 장애 아이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 서로 존중하며 각자 창작 로봇 제작에 집중하고, 나만의 로봇으로 완성할 때마다 아이들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지역 돌봄센터를 통해 발달 장애 아동, 맞벌이/한부모 아동들이 다함께 수업을 받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코딩 로봇 수업을 진행했다.

울산시 코딩 스크래치 주니어 프로그램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진행된 교육으로, 지역 특성상 초등학교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접할 기회가 부족한 곳이다. 이러한 지역에 디지털배움터가 찾아가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친근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이들 특유의 빠른 습득력으로 교육 내용을 잘 따라와 주어, 교육을 진행한 강사와 서포터즈도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강사들은 유익하면서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센스 넘치고 유쾌하신 선생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라며 학부모들도 감사를 전했다.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이번 수업 후기에 강사와 서포터즈들이 더 큰 감사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디지털배움터는 앞으로도 전국 여러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생 소감

최00 (12세)

코딩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내가 프로그래밍한 내용이 실행되어 너무 즐겁고 신나요. 더 다양한 내용을 배워 보고 싶어요.

국00 (11세)

토끼 로봇을 만들고 나만의 로봇을 꾸며 보니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 수업이에요!!

김00 (13세)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알려주셔서 좋아요. 집에 가서 배운 거 다 자랑했어요.



(대전) 강사 / 서포터즈 조경남 / 최재숙
(울산) 강사 / 서포터즈 박선영 / 이도선

상인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시장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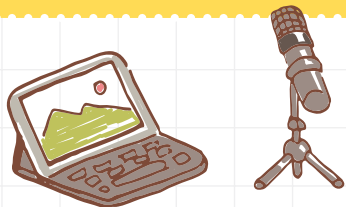
생업에 매여 따로 교육받기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사례 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과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여 시장 상인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디지털
고민 해소

○ 사례 내용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지역화폐, 제로페이 활용 교육),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점포마다 맞춤형 방문 교육으로 스마트폰 활용법, 온라인
마케팅 기법 등의 교육을 제공, 교육 종료 후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등록하고 상점 홍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배운 걸 자꾸 까먹어 적어가며 배웠어요.
이제는 내 나이 또래에서 내가 핸드폰 제일 잘할걸요?”

“마음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니 이런 걸 배우러 다닐 시간이 있나요? 상인들한테는 가게 비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하며 모자가게 사장님은 그간의 고충을 강사와 서포터즈에게 털어냈다. 겨울 문턱의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상인 분들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임주연 강사는 교육 전에 시장상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질문이 아주 다양하고 많으셨는데, 그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짐작이 돼요.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시장 기름집에 기름을 짜러 찾아온 손님은 서포터즈가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걸 알고,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도 좀 알려줘요. 제로페이로 하면 할인도 되는데, 제로페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 손님들과 친절히 알려주는 서포터즈들로 인해 기름집은 금방 화기애애 사랑방이 되었다. 시장 상인들은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어 중간중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따로 수업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며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경기도 찾아가는 스마트폰 기초 활용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및 지역 화폐 사용법을 알리고, 또한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디지털배움터를 안내해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산시 앱으로 소통하기



사상구 르네시떼 쇼핑몰에서 상인들을 만나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 SNS 활용법, 각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교육했다. 또 그 외에도 휴대폰이나 노트북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에게는 적당한 기기를 추천하고 직접 함께 가서 구입하는 등 일상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디지털 문제들을 함께 해소했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와 주시면 좋겠다.”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다며, 앞으로도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서포터즈들도 소감을 밝혔다

교육생 소감

이00 (64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기다리셔서 어찌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수업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실까 봐 일하며 문밖을 몇 번이나 내다봤습니다. 기름 짜다가 물어보고 손님 계산해 주고 또 물어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선생님께서 끝까지 잘 가르쳐주셔서 어찌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다양하게 많이 배울 수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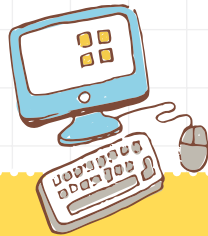


(경기) 강사 / 서포터즈 임주연 / 조현주
(부산) 강사 / 서포터즈 장영미 / 정나영

우리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 코로나19 극복, 우리가 할 수 있다!

9

백신 예약? 키오스크 주문? 나도 할 수 있지!



○ 사례 개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디지털배움터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필요

○ 사례 내용

디지털 취약 계층이 어려워하는 접종 예약, 백신 증명서 발급,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교육장은 물론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 지원



“차근차근 따라서 해 보니,
나도 혼자 할 수 있겠던데요?”

63세의 교육생 한00 님이 강사에게 재밌는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했다. 딸이 전화가 와서 “엄마, 제가 백신 사전 예약해 드릴게요.”라고 하기에 “나 그거 벌써 예약했는데?”라고 대답했더니 딸이 깜짝 놀라더라는 이야기였다.

“딸이 디지털배움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 달랬어요.”라는 교육생의 말에 이재곤 강사가 더 많은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디지털배움터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코로나19 백신을 예약하는 방법과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라며 서포터즈는 교육의 후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다녔지. 그런데 그거 구겨지고, 또

잃어버릴까 봐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척척 보여 줄 수 있으니 참 편하다.”며 교육생들이 디지털배움터에 감사와 기쁨을 전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백신 예약과 증명서 발급뿐 아니라,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더불어 이루어졌다.

“나이 들면 세상 살기가 참 무서워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아직 잘 모르는데, 이제는 무슨 주문하는 기계 같은 게 생겨서 가게 가기도 꺼려져요. 세상이 얼마나 더 빨리 달라질지 겁이 난다니까요?” 이00 교육생의 이야기를 들은 김경덕 강사는 더 천천히, 더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한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하고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따뜻한 친절과 작은 도움이더라고요.”라고 말하는 김경덕 강사의 말을 통해 디지털배움터의 진정한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되새기게 되었다.

대전시 스마트한 디지털 건강 관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접종 증명서 발급 등 디지털을 활용하여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린다.

충북 스마트하게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



무인 주문 기계인 키오스크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COOV 앱 사용 방법을 교육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소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차근차근 몇 번 따라서 해 보니 나도 금방 마스터할 수 있던데요?” 하며 자신감을 표현한 정00 교육생은 교육 후 일일 명예 강사가 되어 다른 교육생들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었다. 비슷한 불편과 궁금증을 가지던 교육생은 더욱 눈높이에 맞춰, 더 쉽게 다른 교육생들을 도울 수 있었다. 디지털배움터의 교육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 더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몇 번이든 차근차근 알려줘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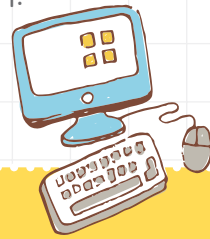


(대전) 강사 / 서포터즈 이재곤 / 김은솔
(충북) 강사 / 서포터즈 김경덕 / 김우섭

이제 디지털 바다에 뛰어들 시간! 제주 해녀 대상 스마트폰 기초 교육

10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이제 육지에 있는 손녀하고 영상 통화도 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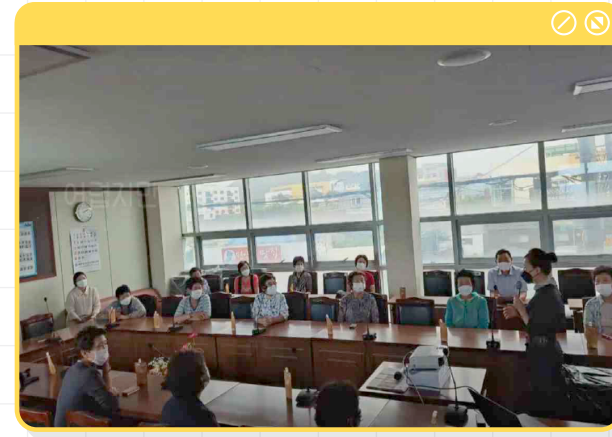


○ 사례 개요

차기 우리나라 무형문화재가 될 해녀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법환 종녀마을 해녀학교”를 방문하여 스마트폰 기초 교육 실시

○ 사례 내용

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병원 예약, 키오스크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해녀들의 디지털 역량을 크게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함



“아유, 물질로 자식들 키우느라 그런 거 할 줄 몰랐죠.”

고다경 강사는 해녀의 딸이자 예전에는 직접 물질을 나가던 해녀였다.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알죠. 주변 해녀 어머님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늘 해녀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라고 말하던 고다경 강사의 열정은 남달랐다. “처음에는 배울 필요 없다고, 어렵다고 완강히 거부하시는 해녀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설득했지요.”

교육 후 해녀 분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 안 배웠음 어쩔 뻔했나요? 전화 걸고 받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좋은 기능이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해녀 분들은 단체 문자 보내기, 사진 찍어 주고받기, 영상 통화 등의 기능을 반

복해서 익혔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기능은 단연 영상 통화였다.

“엄마, 얼굴 보여? 할머니, 얼굴 보여? 그래 그래, 할머니도 보인다!”

고다경 강사의 도움으로 처음 타지에 있는 자식과 손주들에게 영상 통화를 건
어르신은 이제 얼마든지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다며 무척 기뻐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키오스크가 있는 곳을 찾아가 키오스크를 체험하는 교
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간호사가 접수를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은
뭐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 기계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집
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무서워요.”

이러한 해녀 어머님을 모시고 키오스크 교육 진행한 고다경 강사는 “한결 표정
이 밝아지시는 게 보였다”며 교육의 보람을 전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기계를 괜히 겁먹고 어려워했네요.” 하며 해녀 어머님
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다.

물질하는 해녀들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디지털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
번 교육을 계기로 주기적인 해녀 디지털 교육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고, 차
기 우리나라 무형문화재가 될 예비 해녀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교육이었다.

교육생 소감

함00 (80세)

육지에 나간 자식들한테 영상 통화를 거니 얼마나 깜짝 놀
라던지요. 이제 더 자주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정00 (76세)

전화 거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
는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편리한 기능 몇 개만 더 배웠는데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앱 까는 것도 배웠습니다.

김00 (75세)

아픈 거 보다 무서운 게 키오스크예요. 요즘에는 어디 가나
그 기계를 볼 수가 있는데 점점 더 소외감이 들었어요. 배워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데...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도 생기
면 꼭 배워 보고 싶어요.



강사

고다경

Chapter
2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전국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사회는
우리 생활과 이제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전 연령, 전 국민이 소외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디지털배움터가 직접 찾아갑니다.

지역별 우수 사례 지도

경기

- 기초 줌 활용, EBS 활용 온라인 교육
- 계더타운으로 추석 보내기
- 스마트폰과 안성사랑카드 사용하기

강원

- 북한이탈주민 스마트폰 기초 활용
- 3D 펜으로 작품 만들기
- 음식점 및 카페에서 키오스크 활용

서울

- 제1회 어르신 디지털 경진대회
- 자원봉사 활동을 돕는 따뜻한 디지털 마케팅
- 어르신을 위한 AI 스피커 방문 교육

인천

- 파이썬을 이용하여 게임 만들기
-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AR/VR 세상!
- 섬마을 주민들 스마트폰 완전 정복

세종

- 메타버스로 즐기는 빅데이터
- 스마트폰 어플 이용 정부24
- 3D 펜으로 미니 윷놀이 만들기

대전

- 경력 단절 여성들, 쇼핑몰 창업하다!
- 아이들의 창의력을 만나다, 코딩 로봇
- 3D 펜으로 세상을 그리다!

충남

- 신나는 코딩 드론 체험!
- 코로나 극복 스마트한 건강 관리
- 키오스크 세상 속으로

전북

- 새로운 꿈을 위해! 드론의 이해와 활용
- 폰으로 쉽게 찾는 일자리
- 소상공인 PC 영상 제작 파워디렉터

광주

- 코로나19 시대, 랜선 차레 지내기
-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 나만의 블로그 만들기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여행 계획 세우기

전남

- 유튜브 홍보 전략 익히기
- 시장 상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 언제나 열려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

제주

- 세상을 바꾸는 가상 현실, 메타버스 VR 제주 관광 체험
- 이곳이 바로, 스마트 아일랜드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매출 쑥쑥!

충북

- 3D 펜으로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만들기
- 스마트하게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
- 줌(Zoom)으로 화상 회의 운용하기

경북

- 고령 운전자를 위한 디지털 교통 안전 교육
-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타자 기초 교육
- 더 넓은 세상으로! 인터넷 초보 탈출

대구

-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
- 장애 학생을 위한 행복 코딩
- 다문화 주민 대상 온라인 창업 교육

울산

- 스마트폰으로 당근마켓 이용하기
- 슬기로운 울산페이 사용법
- 다문화 여성과 함께 디지털 문턱 낮추기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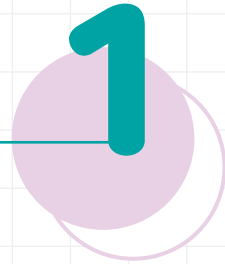
- 중장년 구직자 면접 특강
- 장애인 특화 취업 연계 심화 과정
- 디지털 리터러시 키우기와 키오스크 활용

경남

- 찾아가는 디지털 버스
- 디지털 적응 발판을 위한 다문화 여성 문화 발표회
- 섬마을 코딩 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서울



교육명

제1회 어르신 디지털 경진대회

교육 개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 디지털 소양 교육, 키오스크나 SNS 사용법 등을 배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배운 내용을 펼칠 수 있는 디지털 경진대회를 개최



“이번 대회로 키오스크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디지털 경진대회 예선이 있던 날! 약 80명의 어르신들이 디지털 퀴즈 실력을 겨뤄 상위 20명이 본선 출전 기회를 얻었다. 퀴즈는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꾸준히 듣고 연습해 보신 분이라면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 각자 주어진 태블릿을 통해 관련 퀴즈를 풀고 결과를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선발된 본선 참가자들은 곧바로 ‘키오스크 미션 대회’를 치렀는데, 미션지를 미리 나눠 주고 미션지에 적힌 메뉴를 키오스크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주문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맘이 급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했어요. 이제 어디서 키오스크를 만나도 걱정 없을 것 같네요.”라며 한 참

가자는 소감을 밝혔다.

본선 이후에는 시상식도 이어졌다. ‘디지털 퀴즈 시니어 골든벨’ 부문 대상을 받은 김00 참가자는 “가족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다!”며 크게 기뻐했다. 또 ‘키오스크 미션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조00 참가자는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배우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디지털 소외와 격차를 극복하고 스마트 세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다.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디지털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디지털배움터에 감사해요. 디지털 세상도 알게 해 줬지만, 자신감도 선물해 줬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서울2

2

교육명	자원봉사 활동을 돕는 따뜻한 디지털 마케팅
강사/서포터즈	백선희 / 홍경옥
교육 개요	무료 디자인 플랫폼인 미리캔버스 활용법을 익히고 이를 이용해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 회원모집을 진행

“필요한 자료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자원봉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강사님과 서포터즈님 덕분에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만남을 진행하던 김00 교육생은 이곳을 찾은 백선희 강사에게 미리캔버스 수업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미리캔버스는 저작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으로, 김00 교육생은 이를 자원봉사 전단지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곧바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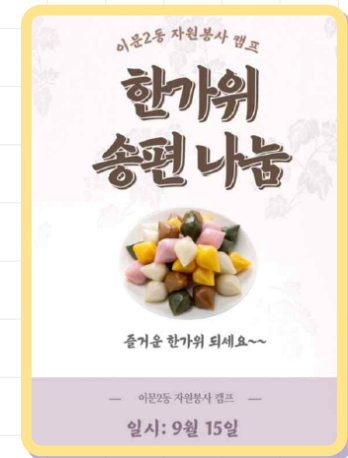
“저는 포토샵도 미숙하고 디자인을 직접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00 교육생은 자원봉사 홍보 전단지를 만들고 무척이나 뿌듯해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임하시는 봉사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게 되어 너무 뿌듯한 수업이었어요.”라며 백선희 강사는 교육 후기를 전했다.

미리캔버스 활용을 익힌 교육생들의 아이디어 회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어떤 어떤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침 추석을 앞두고 있어 봉사자들은 송편을 만들어 취약 계층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기획했고 바로 실행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자료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신세계예요!”

홍보 자료가 완성된 뒤 신00 교육생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디지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많은 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홍보 전단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서울3

3

교육명	어르신을 위한 AI 스피커 방문 교육
강사/서포터즈	이진영 / 안효정
교육 개요	기초 지자체별로 AI 기기를 지원하고 강사를 파견해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고 유용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움

“외롭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디지털 교육이 삶의 활력이 되어 주네요.”



“이게 뭐야? 희한한 게 있네?”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AI 스피커를 신기한 듯 구경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아리예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
하도록 도와줄 AI 친구예요.”

강사의 설명에도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리둥절했다.

“이게 뭐? 아리라고? 이걸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낯설고 어색한 시간도 잠시, 아리가 보여 주는 놀라운 기능에 어르신들의 눈빛
이 반짝였다. 어르신들은 아리가 안내해 주는 기억톡톡, 두뇌톡톡을 함께 했다.

간단한 퀴즈를 풀며 두뇌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거 참 신기하네!”

어르신들은 연신 미소를 지으며 아리가 낸 퀴즈를 먼저 맞추려고 손을 번쩍 번
쩍 들었다.

아리의 기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체조도 알려드
리고 노래와 춤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문명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교육을 통해 나
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진영 강사는 어르신들께 만
족감과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이번 방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
했다.

“경로당에 오면 늘상 장기나 바둑을 두곤 했는데, 새로운 걸 경험해 보니 색다
른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김00 어르신의 말처럼, 디지털배움터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친구 이름은 아리예요.
어르신, '아리야!' 하고 불러 보세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부산1

4

교육명	중장년 구직자 면접 특강
교육 개요	온라인 취업 사이트 안내 및 회원가입, 이력서 등록, 화상 면접 등 다양한 면접 컨설팅 지원



“전국의 아빠들 힘내세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해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열렸다. 면접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면접 특강을 제공하고, 온라인 취업 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교육생들에게는 이에 대한 활용법을 자세히 알렸다.

교육에 참가한 임00 교육생은 필기도구를 꼼꼼하게 챙겨 교육장으로 들어왔다.

“여기에 교육을 들으러 간다니 가족들이 아침에 응원을 해 줬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여러 번 탈락 고배를 마시니 자신감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취업 노하우를 많이 얻어갈 생각으로 왔어요.”

강사와 서포터즈들도 교육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다 상세한 정보와 알아

두면 좋은 유용한 팁들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지금이야 온라인에서 채용 공고도 보고 이력서도 사이트에 업데이트 해 두지만, 아직 그런 환경이 낯선 분들도 있어요. 특히 예전 아버님들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험을 새롭게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강사는 이들에게 여러 취업 사이트를 소개하고 가입 방법부터 차근차근 교육했다. 또 이력서 등록 이후, 면접 스킬과 사례를 예시로 들며 면접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임00 교육생은 강사와 서포터즈에게 감사를 전했다. “기분이 좋아서 치킨이라도 사야겠습니다. 답답하던 속이 시원해진 느낌이예요. 저랑 딱 맞는 일자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채용 정보를 검색하고 취업을 알아봐야겠어요.”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교육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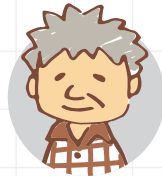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부산2

5

교육명	장애인 특화 취업 연계 심화 과정
교육 개요	일상에서 나만의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채널을 제작하는 과정 교육

“저만의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공유하고 싶어요.”



디지털배움터는 장애인 전문직업학교,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심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저는 몸이 불편해 취업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기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워 다시 취업에 재도전해 보려고 해요.”

최00 교육생의 열정은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적 컴퓨터 활용 능력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고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는 과정도 포함되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상 속 나만의 콘텐츠를 발굴해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기를 돕기 위해서다.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도 많잖아요. 그 콘텐츠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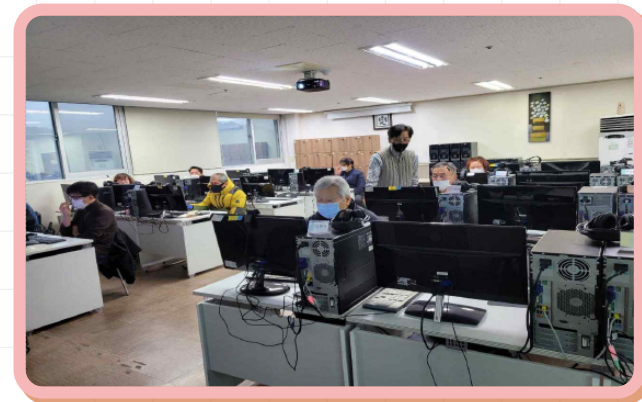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조00 교육생은 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우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언제나 뭔가 불편하고 즐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즐거운 날이 많고 행복한 순간이 많아요. 그런 일상을 다룬 인터뷰를 모아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 같아요.”

조00 교육생의 계획을 강사와 서포터즈는 가까이서 살피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했다.

디지털배움터의 교육 현장은 언제나 화기애애했다. 열정적인 강사와 서포터즈들의 노력,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교육생들의 열의로 활기가 넘쳤다. “제가 만든 콘텐츠 완성되면 꼭 보여 주세요!” 교육생 말에 강사는 교육이 끝나도 언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하라며 이들을 응원했다.



“장애인 여러분의 꿈을 가까이서 응원합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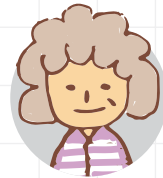
부산3

6

교육명 디지털 리터러시 키우기와 키오스크 활용

교육 개요 KT에서 직접 개발한 키오스크 전용 어플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용법과 함께 보이스피싱, 디지털 리터러시 특강 등을 제공

“나도 핸드폰으로 기차표 예매할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는데, 보이스피싱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조심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와서 정확하게 배웠어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은 많이 부족하다.

이들을 돕기 위해 디지털배움터는 고령층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 특히 이 교육에서는 카페나 패스트푸드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기차표 예매, 민원서류 발급 등 실생활과 밀접한 경험들을 반복 실습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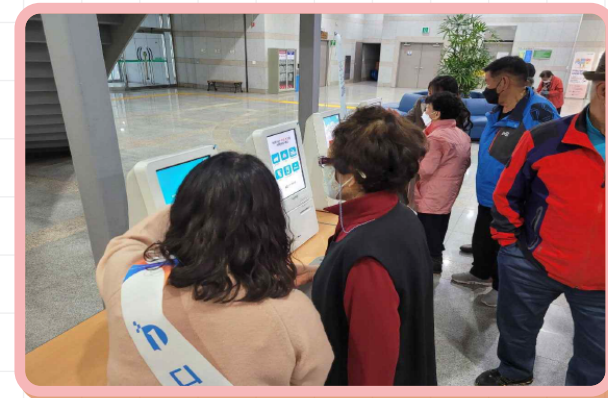
초점을 맞췄다. 또 노인들이 걱정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렸다.

“내가 배운 거를 집에서 복습해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걸 하나하나 다 보여 주니까 저더러 신세대래요.”

최00 교육생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었다.

“사실 어르신들 생각보다 더 큰 교육 욕구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 교육받은 내용들을 일상에 적용하며 더 편리한 디지털 세상을 누리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생들 생활의 편리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것, 그것이 디지털배움터 강사와 서포터즈의 가장 큰 목적이다.



“겁먹지 않고 천천히 몇 번 해 보니까, 키오스크 금방 익힐 수 있겠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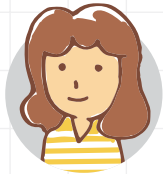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대구1

7

교육명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
교육 개요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 진행

“바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 발길이 정말 뜸해졌어요.”
 올 한 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다. 대구의 한 아울렛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표00 교육생은 강사와 서포터즈에게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환경과 매출에 대해 한참 고민을 털어냈다.
 “가게 월세 내기도 바쁘고, 그마저도 모자란 달도 있었어요. 인건비라도 남기겠다는 생각도 못 합니다.”
 강사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 판매 개척을 위한 교육을 준비했다. 또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뭔가를 배울 생각도 없었어요. 강사님과 서포터즈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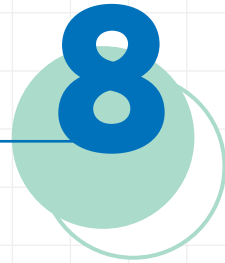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겨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길 잘한 것 같아요. 온라인에 우리 스토어를 열었는데, 점점 손님들의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았던 소상공인들도 교육이 진행될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점차 느끼게 되었다.
 “젊은 손님들은 이제 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적응해야 할 필요는 늘 느끼고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죠. 디지털배움터 교육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가게 사장님한테도 꼭 배우라고 했어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의지와 디지털배움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게들이 늘어선 상점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시장이 달라졌으니, 우리도 달라져 보려고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대구2



교육명 장애 학생을 위한 행복 코딩

교육 개요 장애 유형과 학습 능력을 고려해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대구에아람학교 외 3개교의 특수 학급에서 장애 청소년 코딩 교육 실시

“장애 청소년들의 디지털 세계 적응을 응원합니다.”



교육 방법의 특수성과 한계로 장애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정보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장애 청소년들이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다. 강사는 수업 전 아주 단단한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함께 할 학생들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그 학생들에 맞춰 강의안을 항상 조금씩 다시 수정합니다. 거의 매 수업마다 강의 ppt도 새로 만들고 난이도를 조절하지요.”

아무리 수업 계획을 완벽히 준비한다 해도 실제 장애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종종 생긴다고 한다.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관심 있어 하면 진도를 좀 늦추더라도 그 부분에 시간을 더 할애해요.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가장 힘들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강사의 마음은 무척이나 세심하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어 서인지 아이들도 즐거워하며 수업에 곧잘 따라 주었다.

“선생님,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내일 또 오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에 강사는 피로와 염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한다. 코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인 만큼, 디지털배움터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코딩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때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대구3

9

교육명 다문화 주민 대상 온라인 창업 교육
교육 개요 양국 문화 수용성을 지니고 모국의 인적·지역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한 결혼 이민 여성의 장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을 진행

“제가 만든 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만든 거 한 번 보실래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태국에서 온 결혼 이민 여성인 한 교육생이 보여 준 것은 손으로 직접 만든 수 공예품이었다. 섬세한 매듭과 장식으로 꾸며진 자그마한 드림캐처를 교육생은 강사에게 선물했다.
 “이렇게 이쁜 걸 직접 만드셨어요? 솜씨가 진짜 대단하신데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과정을 준비한 강사는 제대로 교육생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교육에서 내가 만든 상품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이 드림캐처도 한번 올려 보세요!”
 강사의 말에 교육생의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교육장에 다문화 결혼 이민 여성들이 모였다. 강사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스스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상품을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전했다. 수업 후에는 교육생들 직접 실습해 보며 모르는 부분을 강사에게 질문했다. 우리말이 서툰 교육생도 있어 강사는 서둘지 않았다. 천천히, 모든 교육생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제가 이 수업을 배운다고 고국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로 알려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혼자 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런 것도 알려준다 하니 조금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열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링크 알려줄 거예요.” 강사에게 이처럼 애뜻한 후기를 들려주는 교육생도 있었다.

“아이들도 호기심에 엄마가 어떤 걸 배우는지 물어봐요. 인터넷 쇼핑몰을 열 거라는 걸 얘기해 주면, 아이들도 그게 뭔지 벌써 알고 있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이 수업은 저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자신감과 행복을 주었어요.”

디지털배움터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다문화 가정이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로 제가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0

인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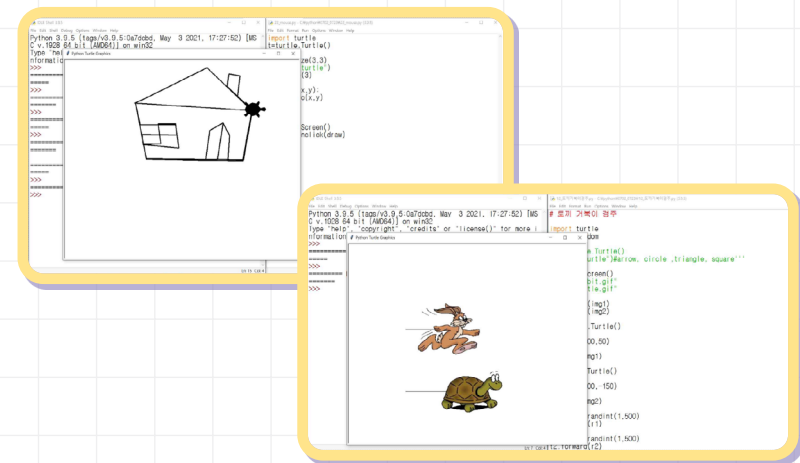
교육명	파이썬을 이용하여 게임 만들기
강사/서포터즈	유근희 / 강명희
교육 개요	입문자도 이해하기 쉬운 파이썬을 이용해 기초 도형 그리기를 배우고, 간단한 게임 만들기를 경험하여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교육

“마치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파이썬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버드나 예일대와 같은 세계 유명 대학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프로그래밍 교양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파이썬’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간결한 문법으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그래픽, 웹 개발 등 여러 업계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비대면 파이썬 수업에는 초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했다. 파이썬이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는 하나, 처음 접하는 교육생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할 수 있다. 유근희 강사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쳐 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까?’를 항상 고민하며 수업을 진행해 왔다.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교육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흥미로운 예제를 여기저기 뒤지며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교육생들로 하여금 ‘어렵다’라는 반응보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 파이썬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과정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연령대 차이에 대한 어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수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하고 디지털 세계로 한걸음 나아가는 경험을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기초 도형부터 시작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은 여러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파이썬을 배웠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1

인천2

교육명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AR/VR 세상!
강사/서포터즈	김양숙 / 이윤선
교육 개요	3D 환경과 멀지큐브 환경에서 각각 나만의 롤러코스터 만들기, 또는 자유 주제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화면으로 구성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실행

“이렇게 재미있는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에요!”



요즘 디지털 세계의 화두는 단연 메타버스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는 더욱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의 용어로 3차원 가상 공간을 지칭한다.

이미 미국의 어린이들은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로블록스 내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시도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 교육을 통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을 포함해 멀지큐브(Merge Cube)의 개념을 알아보고,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경험함과 동시에 직접 가상 현실을 만들어 보는 체험이 이뤄졌다. 또 직접 롤러코스터 체험을 해보거나 도시 탐험 대원이 되어 보는 흥미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반응이 매시간 뜨거웠다. 김양숙 강사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만 되면 무척 아쉬워했다’며 수업의 열띤 분위기를 전했다. 창의력이 뛰어난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감상할 때가 가장 설레고 인상적이었다고도 말했다. 디지털배움터는 이처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기술과 세계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강사 소감
김양숙(인천)



다음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진다는 교육생들의 말에 수업하는 보람과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은 처음이라고 감사의 박수를 쳐 주시던 어머님과 모든 시간에 빛나는 눈빛으로 함께 해 준 교육생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과연 VR과 AR 수업을 잘 따라올지 의구심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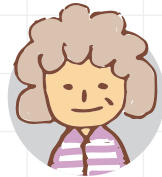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2

인천3

교육명	섬마을 주민들 스마트폰 완전 정복
강사	손연옥
교육 개요	인천 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교육

“전화만 썼는데 다양한 기능을 배워서 좋아요.”



인천시 이작도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이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기 어려워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많지 않아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섬마을에 온라인 화상 교육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요즘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데, 우리도 비대면 수업을 다 들어 보네요.”

비대면 교육을 처음 접하는 교육생들은 호기심을 내비치며 교육이 열리는 초등학교 교실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업에 참여한 강00 교육생은 “스마트폰은 갖고 있지만 그냥 전화기roman 쓰고 있지 다른 기능은 전혀 모른다”며 이번 수

업 내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애들이랑 화상 통화도 하고, 쇼핑도 해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업은 몇 번이고 반복해 천천히 이뤄졌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알려 줄 거야.”라는 한 교육생의 말에 교육장에 웃음이 퍼졌다.

교육장을 나서며 이00 교육생은 분교 화단에 핀 예쁜 꽃을 촬영해 가족들의 카톡창에 올렸다. 그러자 곧 아들에게 “우리 엄마 이제 사진도 잘 보내네!” 하며 칭찬을 들었다는 후기가 들려왔다.

섬마을까지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가 어르신들에게 소외가 아닌 관심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 배워서 쇼핑도 해 보려고요.
인터넷에는 별 게 다 있거든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3

광주1

교육명	코로나19 시대, 랜선 차례 지내기
강사/서포터즈	임하정 / 최수영
교육 개요	온라인 쇼핑으로 장보기, 화상 채팅 어플을 활용하여 비대면 차례 지내기 시뮬레이션

“랜선 차례 지내기,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모임 인원이 제한되면서, 가족 모임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명절 또한 이를 빚겨 갈 수 없기에, ‘귀향’ 대신 ‘집콕’을 지향하고 있다. 달라진 명절 풍경을 살펴보면, 언택트 명절 선물이 급증했으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설 음식 장을 보고, 랜선으로 차례를 지내는 문화 또한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간편 결제 및 계좌를 등록해 보다 자주,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요리법 또한 유튜브를 통해 쉽고 다양하게 익힐 수 있으며, 화상 채팅 어플을 활용하여 각자의 집에서 차

린 음식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차례상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합을 맞춰 절을 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등 랜선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장소와 인원 제한 없이 가족 및 친지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 교육생은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척척 담고,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요즘 시대가 신기하다. 올 추석에는 온라인으로 친척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감회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새로운 랜선 문화를 통해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는 데 모두 동참을 약속하며 교육을 마쳤다.

서포터즈 소감
최수영(광주)



코로나가 명절까지 집어삼킨 요즘, 누군가에게 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추석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겁지 않아서 좋네요.
화면으로라도 손주들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4

광주2

교육명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 나만의 블로그 만들기
강사/서포터즈	김윤희 / 최영선
교육 개요	블로그를 개설 및 편집 기능을 익히기, 게시글을 업로드하기, 댓글 달기 등 온라인 소통 교육

“내 일과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블로그란 개인의 생각과 경험, 알리고 싶은 의견이나 전문 지식 등을 웹사이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 문화, 예술, 경제, 교육, 일상, 육아,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으며, 검색만으로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을 두 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라는 매체를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강사님이 반복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니 교육생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었다. 또 소수로 진행되어 각 교육생이 원하는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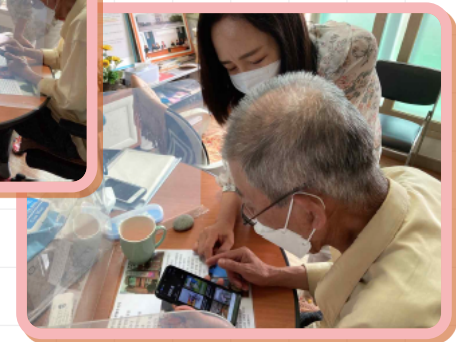


강사 소감
김윤희(광주)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과 블로그 편집을 어려워하신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또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올리며 소통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검색을 통해 블로그 게시글을 열어보는 것은 물론, 나만의 블로그를 직접 개설해 보았다. 내 집을 짓듯, 취향에 맞춰 웹페이지를 꾸미고, 일상 또는 취미와 관련된 글을 올리며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타 블로거들과 이웃을 맺고,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방법 또한 익힐 수 있었다. 스스로 글을 작성하고,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교육생에게는 큰 성취감을 안겨 주었다.

이제 온라인 공간에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교육생들이, 블로그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과거에 공부하던 열정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5

광주3

교육명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여행 계획 세우기
강사/서포터즈	문지혜 / 공혜영
교육 개요	스마트폰 검색을 통한 여행 정보 서칭 및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이제야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포털사이트에 여행 두 글자만 검색해도, 유명 관광지과 맛집 추천은 물론 효율적인 동선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SNS에서는 사진을 통해 보다 생생한 후기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시태그 걸어 다른 사람과도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이용해, 어르신들도 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떠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원하는 여행 정보를 수집하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코스와 동선을 계획하며 능동적인 여행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행지에서 뿐만 아니라, 동네 가게에만 들어가도 발견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어르신들이 겁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히고 연습해 보는 시

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평소 스마트폰 검색 및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을 뿐더러, 주변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렵기만 했던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고 키오스크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교육은 KBS 광주방송 뉴스에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의 사례로 소개되었다. ‘디지털 뉴딜’이란 AI-키오스크와 같이 비대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도 그에 걸맞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경제 발전까지 기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나 이러한 비대면 문화에 적응이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기에 이번 교육이 보다 큰 의미를 가졌다.

강사 소감
문지혜(광주)



코로나로 인해 누군가를 만날 기회조차 줄어든 요즘, ‘디지털 강사’라는 이름으로 교육생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모든 교육생 분들이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다 어려운 게 있으면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곤 했는데, 이렇게 디지털 교육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6

대전1

교육명 경력 단절 여성들, 쇼핑몰 창업하다
강사/서포터즈 김현주 / 김현진
교육 개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한 홍보부터 개업까지
 쇼핑몰 창업 교육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크게 늘었다. 오프라인의 가게들도 매출이 줄어들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란, 너무나 멀고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이번 교육은 중장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이들은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가세해 재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졌다. 가게를 운영해 왔던 교육생 또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일상 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기에, 김현주 강사는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수업을 준비했다. 하나라도 더 알려 드리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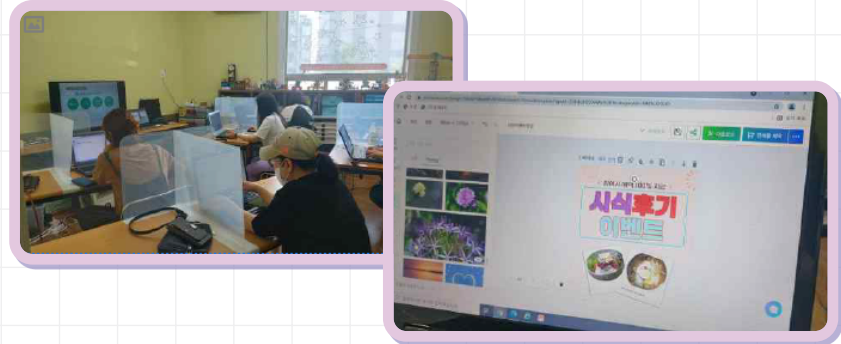


강사 소감
 김현주(대전)

‘경력 단절’, ‘코로나19’ 등 처음 만났을 때 교육생 분들이 참 많은 걱정을 안고 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에 공감하기에, 하나라도 더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고민했고 수업 준비도 배로 열심히 했던 교육이었습니다.

었다.”고 말했다.
 쇼핑몰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였다.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보다 쉽고 멋지게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고객용 전단지 제작은 물론, SNS용 광고 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그 효용이 크다. 교육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익히며 실전처럼 홍보물을 제작해 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쇼핑몰 오픈에 앞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세세하게 교육하며 창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다. 창업 단계에 맞춰 촘촘히 짜인 커리큘럼 덕분에 교육생들의 신뢰가 특히나 높았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첫 간판을 걸기로 한 예비 사장님들의 어깨가 한결 펴지는 희망찬 시간이었다.



“창업 준비부터 오픈까지,
 촘촘한 커리큘럼에 대한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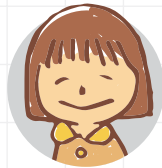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7

대전2

교육명	아이들의 창의력을 만나다, 코딩 로봇
강사/서포터즈	조경남 / 최재숙
교육 개요	토끼 코딩 로봇을 제작, 작동 원리를 이해하여 창작 활동 진행

“내가 코딩한 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다음 시간이 더 기대돼요!”



교육부가 2024년부터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AI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이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기에, 이에 발맞춰 코딩 교육장을 열었다.

이 수업은 돌봄 기관에서 진행되어, 발달 장애 아이와 맞벌이·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였다. 각기의 부품이 모여 하나의 로봇이 되듯, 재능도 환경도 다른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활기를 이루었다.

“비장애 아이와 발달 장애 아이가 함께 수업하였어요.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로봇 제작에 집중하며 나만의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해 보니, 아이들 각자의 또 다른 로봇이 나올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수업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라며 강사는 교육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아이들은 먼저 토끼 형태의 코딩 로봇을 조립했다.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토끼 코딩 로봇을 보며 작동 원리를 배우고 코딩의 기초를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코딩 로봇을 새롭게 만든 후, 친구들 앞에서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경남 강사는 “친구가 만든 로봇을 보고 ‘우와! 멋지다!’를 쏟아내는 아이들에게서 선한 이해와 존중을 보았다.”며 뿌듯한 소감을 남겼다. 감탄과 웃음을 숨기지 않는 아이들 덕분에 강사와 서포터즈도 들뜬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처음 접하는 코딩 로봇에 아이들은 큰 호기심을 보였다. 강남이나 신도시에선 코딩 학원이 성시를 이룬 지 한참이 되었지만, 취약 계층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코딩을 접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로봇을 움직인 것처럼, 많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더 커다란 미래를 움직일 수 있길 바란다.

서포터즈 소감 최재숙(대전)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 말 한마디에도 쫓긋 귀를 세우고, 동글동글 눈동자로 따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코딩 로봇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하며, 저 또한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18

대전3

교육명 3D 펜으로 세상을 그리다!
강사/서포터즈 조경남 / 최재숙
교육 개요 3D 펜의 원리와 종류를 학습, 3D 펜을 사용한 도형 만들기 실습



“이거 유튜버가 썼던 3D 펜 맞죠?”

3D 펜, 어른들에게는 생소할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아, 그거요?” 할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 한 유튜버가 3D 프린터의 휴대용 버전인 3D 펜을 이용해 피규어 등을 만들고, 그 피규어로 스토리를 구성해 선보인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자그마치 10만, 덕분에 이번 수업에서 3D 펜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빠르고 자연스러웠다.

3D 펜은 특별한 장치나 프로그램 없이, 노즐과 펜만으로 3D 도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이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3D 펜의 원리와 다양한 종류를 이해하고, 3D 펜을 직접 사용해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이 수업이 열릴 수 있었던 건, 조경남 강사의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고민

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아이들에게 ‘디지털 시대’와 관련된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 난감함이 앞섰다고 한다. 강사는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디지털’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3D 펜을 떠올렸고, 그 결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눈을 볼 수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보람찬 미소를 지었다.

“유튜브로 봤을 땐 쉬울 줄 알았는데, 직접 해 보니 조금 어려워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작품을 만들었다. 유튜브로만 봤던 3D 펜을 직접 써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서포터즈 소감
최재숙(대전)



아이들이 3D 펜에 대해 쑥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보람찼습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에 더욱 힘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수업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3D 펜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 어려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울산

19

교육명	스마트폰으로 당근마켓 이용하기
강사/서포터즈	하영옥 / 김진랑
교육 개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 및 중고 물품 마켓 이용 교육



“‘당근’으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당근이세요?’라고 묻는 인사가 많아졌다. 바로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 중고물품을 사고팔 수 있는 ‘당근마켓’이라는 앱 서비스 때문이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 ‘당근마켓이라고 알지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 줘요.’ 하며 교육생들이 먼저 사용법을 물어 오기도 한다.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과 어린이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너도나도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있으니, 스마트폰 앱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이라도 당연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40대 지적 장애가 있는 한 명의 주부 수강생과 함께, 맞춤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생은 평소 당근마켓은 물론,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툴러서 모바일 쇼핑 등 간단한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었다며 불편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강사 소감
하영옥(울산)

정보 소외를 겪고 있는 교육생에게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 제게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활용해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생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생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당근마켓과 모바일 쇼핑 앱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다. 평소 당근마켓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교육생은 ‘아, 이게 찜하는 거죠?’ 하며 들어 알고 있던 기능들을 물어보며 차근차근 사용법을 익혔다. 그리고 “아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올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려고요.”라고 말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보기도 했다. 또 쇼핑 앱으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며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렵지 않네요. 이제 택배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라고 말하며 더욱 편해진 쇼핑에 설렘을 표현했다. 단지 기회가 없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교육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 많이 배워서 아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울산2

20

교육명	슬기로운 울산페이 사용법
강사/서포터즈	김진훈 / 신익환
교육 개요	재난지원금 신청 및 울산 페이 지역 화폐 사용법 교육

“QR코드로 쓰는 울산페이,
효자가 따로 없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아예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지역 화폐 ‘울산페이’와 인터넷뱅킹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장사를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스마트폰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컴퓨터를 활용해 비대면 수업으로 교실을 여는 것과 동시에, 강사와 서포터즈가 언양시장을 직접 찾아가 상인 분들을 한 분 한 분 뵈고 평소 겪고 있는 디

지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주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교육 내용에도 기대 이상으로 잘 따라와 주었다.

한 시장 상인께서는 “나 핸드폰으로 영수증도 발급할 줄 안다.”고 주변 분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다.

특히 ‘울산페이’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얻는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니, 유익한 정보라며 굉장히 좋아했다. 지역 내 가게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버튼 하나만 눌러 QR로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니 “효자가 따로 없네.”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 의도치 않게 소상공인 분들에게 효자를 만들어 드린 셈이다. 울산 지역 소상공인 분들께 ‘슬기로운 울산페이 사용법’ 즐길 수 있게 해 준,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서포터즈 소감
신익환(울산)



울산페이의 편리함과 혜택을 아예 모르고 계셨던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공의 혜택을 소상공인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 뿌듯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만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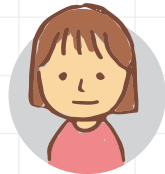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똑똑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21

울산3

교육명	다문화 여성과 함께 디지털 문턱 낮추기
강사/서포터즈	김미아 / 류길주
교육 개요	스마트폰 기초 기능 및 포털사이트 검색 방법 교육



“한국어로 알아 가는 디지털 세상!”

“한국에 온 지는 삼 년 됐어요.” 교육생은 서툰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두 명 모두, 결혼을 이유로 홍콩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었다.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고, 스마트폰 또한 홍콩어와 영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김미아 강사는 수업의 첫 단계로, 스마트폰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보게 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스마트폰의 간단한 설정부터, 포털사이트 가입과 검색, 메신저 이용하는 법을 배우며, 디지털 소통의 문턱을 차근차근 낮췄다. 그리고 전자 명함을 만들어 어



서포터즈 소감
류길주(울산)

교육생들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배우려는 열정 앞에서 언어는 큰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니, 교육생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디에서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단한 기능들이었지만,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았다.

교육생 한 명은 3살과 4살짜리 딸을 둔 엄마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네이버 검색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카페에 가입해 아이들의 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교육생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 했다. 관련 앱을 깔아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조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 또한 더 많은 디지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배움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미아 강사는 “두 분 모두 부지런히 배우서, 내년에는 디지털 서포터즈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교육생들을 뜨겁게 격려했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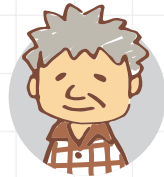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22

세종1

교육명	메타버스로 즐기는 빅데이터
강사	최진영
교육 개요	메타버스(게더타운) 교육 및 빅데이터 관련 파이썬·인공지능 교육

“메타버스는 새로운 교실의 학생이 되었어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실생활처럼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메타버스라는 컨셉에 걸맞게, 가상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게더타운’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작은 화면 속에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놓여 있다. 실제 교실과 똑같이 꾸며진 이 가상 교실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닮은 캐릭터들을 자리에 앉혀 수업을 듣는다.

강사의 아바타가 강단에 나가면, 수업을 듣는 학생 모두가 강사의 PT 자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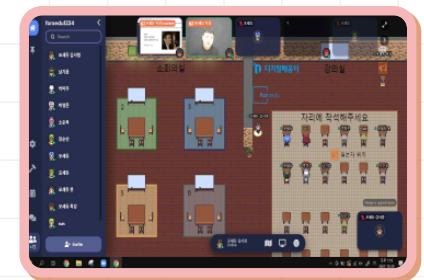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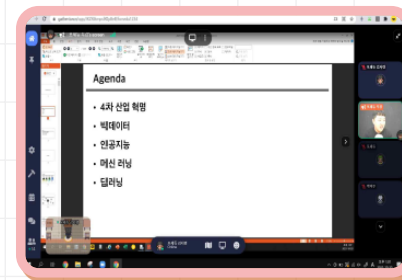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상을 통해 수업을 듣는 방법은 화상 채팅 앱 줌(Zoom)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게더타운은 조별과제 진행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추가로 마련된 공간에서 조별로 둘러앉으면, 책상의 도구들을 이용해 과제물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다. 문서와 영상을 링크로 공유하고 저장해 두는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아바타가 우왕좌왕하거나,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 대답을 못하는 등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지 않아 생기는 에피소드들도 있었다. 그러나 강사가 우려했던 고령층 교육생들까지도 차차 수업에 적응했으며, 한 교육생은 “제법 그럴 듯하게 꾸며진 가상 교실에서 듣는 수업이 신선했다. 기능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현실 만큼이나 가까워진 메타버스 교실이 어린아이도, 어르신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열린 교실이 되길 바란다.

강사 소감
최진영(세종)



메타버스 속 가상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고령층 교육생들이 잘 따라와 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강의가 끝나 매우 뿌듯합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이 자주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줄지어 놓여 있는 책상 하며, 의자 하며
진짜 교실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23

세종2

교육명	스마트폰 어플 이용 정부24
서포터즈	유지원
교육 개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진위 여부 확인 및 QR코드 전송 교육



“이제 동사무소 안 가도 되겠네!”

이제 주민등록등본 짚은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찾아가지 않아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급받은 서류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으니, 프린터를 찾는 수고로움 또한 덜었다.

그러나 고령의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이 편리가 미처 다 미치지 못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간단한 서류가 필요할 때에도, 간단하지 않게 주민센터에 방문에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받아 와야 했다. 혹여 신분증이라도 놓고 오는 날엔 헛걸음을 반복해야 했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서포터즈가 직접 교육에 나섰다. 이번 수업은 한 분의 어르신 교육생을 모시고 일대일



서포터즈 소감
유지원(세종)

아무래도 대면 교육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안전히 교육을 마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교육생 분께서 꼼꼼히 메모를 적어 가며, 수업을 따라와 주셨고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로 이루어졌으며, 용이한 설명을 위해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에 더욱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수업 듣는 거 많이 불편하시죠?”, “아휴,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걸 알려 주시는데, 마스크라면 두 번도 써야지.” 서포터즈와 교육생이 서로를 배려한 덕에, 안전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 정부 24 앱을 받고, 전자 문서 지갑으로 서류를 수령한다. 받은 서류는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메뉴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진위 여부 또한 종이 서류와 동일하게 90일이라는 점도 꼼꼼히 알려 드렸다.

인터넷 쇼핑에 이어 민원 발급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교육생은 “친구들에게도 알려 줘야겠다.”며 기뻐했고, 서포터즈는 교육생이 “이제 동사무소 안 가도 되겠네!”라고 말할 때 가장 뿌듯했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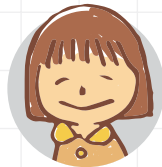
“이렇게 간편하고 쉬운 걸, 이제야 알았네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24

세종3

교육명	3D 펜으로 미니 옷놀이 만들기
강사/서포터즈	조은영 / 노송이
교육 개요	3D 펜의 개념 학습과 사용법 교육 및 미니 옷 제작



“3D 펜으로 집도 짓고, 차도 만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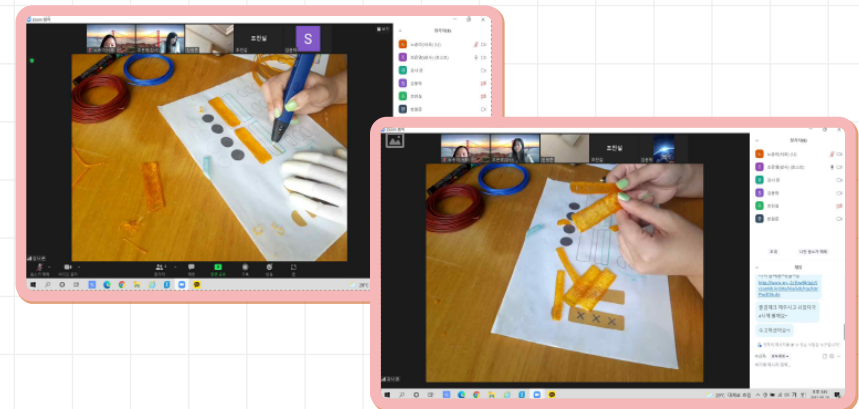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입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 별도의 프로그래밍이나 전문 지식 없이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체 모형을 만들 수 있는 '3D 펜' 덕분이다. 이번 수업에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3D 펜의 원리부터 활용 분야까지 다양하게 학습하고, 미니 옷을 만들어 옷놀이를 시연해 보았다. 3D 펜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다. 아이들은 이미 유튜브나 대형서점에서 3D 펜을 접한 바 있어 펜을 소개하자 크게 반가워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워 보고자 기획했던 방법이 200% 효과를 본 듯했다. 평소에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이 수업에서만만큼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



강사 소감
조은영(세종)

추석을 맞이해 3D 펜으로 옷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으로도 매우 보람을 느꼈어요. 기회가 된다면 심화 과정의 강의를 개설하여 교육생들에게 한 번 더 멋진 작품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여 주었다. 아이들의 창의력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도안을 나눠 주고 시작했지만,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 손에 들린 옷 조각들은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었다. 자신의 개성을 색색의 필라멘트에 녹여 낸 듯했다. 만든 옷은 아이들에게 기념품으로 가져가게 했다. 수업 때 느꼈던 즐거움과 뿌듯함을 가족들과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추석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주었다. 한 아이는 3D 펜으로 집도 짓고, 차도 만들 거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들의 창의력이 만나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질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 본다.



“내가 원하는 색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경기

25

교육명	기초 줌 활용, EBS 활용 온라인 교육
감사/서포터즈	김지민 / 이연선
교육 개요	학교에서 활용하는 EBS 프로그램과 문제 풀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가입 및 이용 방법 교육

“학교에서 화상 수업을 할 때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등교 수업 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된 최근, 환경 조건이 달라졌다. 각 가정에 갖춰진 디지털 환경과 보호자의 유무가 제각각이며,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몰라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지털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상 프로그램 줌(Zoom)의 사용법과 활용 방법을 교육했다. 추가로 학교에서 활용하는 EBS 프로그램과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돕고, 이용 방법에 대해 가르쳤다. 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서포터즈 소감
이연선(경기)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3개 국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사용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많은 아이들을 위해 디지털 교육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로 교육생들을 모집했으며, 언어 발달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이연선 서포터즈가 통역을 도왔다. 덕분에 아이들과 언어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김지민 강사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열심히 하는 마음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열정이 아주 뛰어나다.”라며 교육생들을 칭찬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못 풀었던 문제들을 집에 가서 형이랑 풀어 볼 거예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경기2

26

교육명	게더타운으로 추석 보내기
강사/서포터즈	임주연 / 이은자
교육 개요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온택트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메타버스 게더타운 관련 교육

“너무 재미있어서 쉬는 시간에도 게더타운에서 놀았어요!”



메타버스라는 걸 처음 들었다는 아이들은 게더타운을 시작함과 동시에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강사도 더욱 신이 났다고 한다.

“집에 가서 동생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집에 가서 언니랑 같이 해 볼 거예요!”, “태국에 계신 할머니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업 내내 아이들의 웃음과 열띤 분위기는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삶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함께 모여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메타버스 게더타운으로 모두를 초대했다.

스마트한 최신 기기들을 흔하게 접하며 이미 디지털 학습과 비대면 만남 등에 익숙한 아이들도 있지만, 소외 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비록 가상 공간이라지만, 그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가평국제문화교류센터의 아이들은 전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었던 터라, 의사소통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꼭 가상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만남’ 자체가 관계에 대한 공부라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게더타운을 ‘교실’이 아닌 ‘놀이터’라 부르며 교육을 진행했다.

놀이터에 머무는 내내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방을 꾸몄다. 이곳만큼은 국적으로도, 환경으로도, 공부 실력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가상 세계. 평등한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선생님에게 그림을 그려 보이기도 하고, 비밀방에 들어가 비밀 일기를 쓰기도 했다.

“친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림판에서 내가 그린 그림을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을 주셨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게더타운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한 수업은 무척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창작하며 가상 놀이터를 넓혀 가고 있었다.

강사 소감
임주연(경기)



센터 내에 디지털 기기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꿈나무들이 더 많은 교육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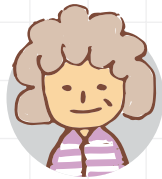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경기3

27

교육명	스마트폰과 안성사랑카드 사용하기
강사/서포터즈	한금화, 도경미 / FNJ 전문강사팀
교육 개요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 및 안성사랑카드 앱 사용법 교육

“파마하러 왔다가 배우고 갑니다. 옆에서 듣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안성사랑카드’는 안성의 지역 화폐로, 안성의 많은 음식점, 슈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인센티브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상부상조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충전이나 잔액 확인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안성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스마트폰 사용 법과 지역 화폐 앱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하고자 배움터를 열었다. 교육생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전화 외의 기능에는 사용이 서툴렀다. 기본적으로 문자 확인하는 법, 글자 크기 조절하는 법,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하는 법 등을 먼저 알려 드렸다. 중간중간 교육생들이 질문을 하면, 일대일



서포터즈 소감
FNJ 전문강사팀(경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배우려고 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평소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 맞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다. 그다음, 본격적으로 안성사랑카드 앱을 켜 보았다. 모바일 뱅킹으로 금액을 충전하는 법과 잔액을 확인하는 법만 알아도 훨씬 편하게 화폐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의 교실은 센터나 학교가 아닌, 동네 사랑방이라 할 수 있는 미용실이었다. 수업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머리 손질을 하러 오신 분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 “이런 교육도 해 주시다니, 파마하는 동안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라며, 디지털배움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한금화도경미 강사는 묻고 또 묻는 어르신들의 질문에 몇 번이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렸다. “여러 번 까먹으면 여러 번 배우면 되죠. 스스로 해내려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라고 말하며, 교육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다.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친절한 디지털 교육의 사람과 마을을 모두 일으키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어찌나 친절하게 알려 주시던지, 고생하시는 걸 보니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28

강원

교육명 북한이탈주민 스마트폰 기초 활용
강사/서포터즈 조유나 / 김혜림
교육 개요 스마트법 기초 사용법 및 앱 활용법 교육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곳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네모난 창으로 세상을 들여다본다. 온갖 뉴스와 소식을 듣고, 영화와 음악 같은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쇼핑, 학습, 은행 업무 등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것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들린 창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첨단 기술과 편리한 기능이 가려진 채, 가끔 벨이 울리는 전화기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 스마트폰의 기술이란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 남한에 처음 정착할 때에 의무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들긴 했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창으로 활용하고, 그 편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스마트폰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리와 밝기 조절 등 기본적인 설정을 가르쳤



강사 소감
조유나(강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나 의사소통이 어렵진 않을까, 수업 내용이 어렵게 전달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걱정과 달리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교육생 모두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교육에 임해 주었습니다. 수업 초반 경직됐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음 수업에서도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 그리고 검색포털 ‘네이버’와 자신에게 필요한 앱을 직접 받아 보며, 사용법을 터득하도록 했다.

조유나 강사는 다른 수업을 멈추어 둘 정도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수업에 부담을 느꼈었다고 한다. 수료생 또한 복지사의 설득으로 떠밀려 온 자리였기에 다소 경직된 분위기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서로의 열정을 확인하며, 끝 무렵에는 아쉬움을 내비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까지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손에 들린 창과 마음에 난 창이 모두 열리게 된 수업이었다. ‘함께 걷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이번 교육의 주제였다. 이번이 한 걸음이었다면, 두 걸음은 또 얼마나 큰 양분이 될 수 있을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디지털 교육을 기대한다.



“스마트폰 기초 강의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 수업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서 기대돼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29

강원2

교육명	3D 펜으로 작품 만들기
강사/서포터즈	송아람 / 양수정
교육 개요	3D 프린팅의 원리와 활용에 대한 이론 수업 및 3D 펜을 사용한 작품 만들기 실습



“3D 펜, 꼭 써 보고 싶었어요!”

3D 프린팅이란 프린터로 입체 도형을 찍어 내는 것을 말한다. 잉크 대신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특별한 기능을 작은 펜 안에 담은 것이 3D 펜이다. 필라멘트라는 원료를 펜 안에 넣고 녹이면, 입체도형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이번 교육을 많이 신청해 주었다. 여타 교과 관련 수업보다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주제였던 것은 확실했다.

3D 펜을 처음 사용해 보는 아이도 있었고, 몇 번 사용해 본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3D 펜을 아예 모르는 아이들은 없었다. 아이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 있는



강사 소감
송아람(강원)

3D 프린팅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만큼, 아이들이 3D 프린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안을 작성했습니다. 교육 시간 내 내 아주 열심히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하고 교육자로서 뿌듯했습니다.

교구이자 장난감이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양하게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D 프린팅의 원리와 활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D 펜 실습에 들어갔다. 양수정 서포터즈가 도안을 직접 준비해 주었는데, 덕분에 알록달록 다채로운 드림캐처를 만들어 볼 수 있었다. 3시간 동안이나 이어지는 수업에 아이들이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했었지만,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놀랍고 기특했다.”고 송아람 강사는 칭찬을 덧붙였다.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아이들이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즐겁게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3D 펜을 처음 써 보는 거라 어렵기도 했지만,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0

강원3

교육명	음식점 및 카페에서 키오스크 활용
강사/서포터즈	이현숙 / 신순옥
교육 개요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한 주문 및 스마트폰 앱 활용 교육

“키오스크 주문으로 친구들에게 한턱 내겠습니다.”



기업이나 업주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근, 서비스, 금융, 외식 업계 등 전 분야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키오스크의 사용 또한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기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키오스크가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터치 조작이 어려울뿐더러, 기기 앞에 오래 있으면 뒷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서는 고령층 교육생들에게 키오스크 사용은 물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병원 진료 예약과 기차표를 예매 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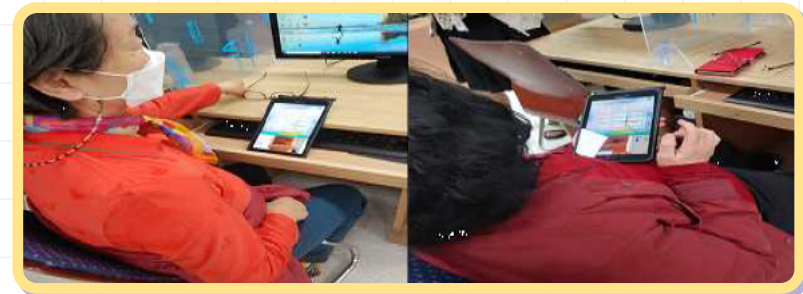


서포터즈 소감
신순옥(강원)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할 때에 “이제 내가 사줄게! 내가 쓸게!” 이야기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껏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 교육생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먼저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복잡한 단계’였다. 여러 카테고리 속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추가 메뉴나 봉투 구입 여부까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교육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패드로 연습하며, ‘결제 완료’까지의 선택 과정을 차근차근 익혔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병원 진료 예약도, 기차표 예매도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숙 강사는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기술은 앞으로 더욱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 거예요. 우리 교육생 분들도 그 기술을 피하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길 바라요.”라고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되짚어 주었다. 어르신 교육생들이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자신감까지 얻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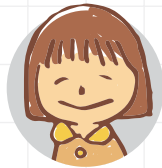
“차근차근 반복해서 연습하니, 꽤 익숙해졌습니다. 실전에서도 겁먹지 않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1

충북

교육명	3D 펜으로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만들기
강사/서포터즈	한유리 / 김미경
교육 개요	3D 펜의 안전한 사용법 교육과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 만들기 실습



“3D 펜으로 과자집을 만들었어요.”

3D 프린팅의 기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커다란 프린팅 기기가 없어도, 펜 하나로 입체도형을 그리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3D 펜은 필라멘트라는 색색의 심을 녹여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피규어 등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교구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재미있는 놀이로 알려진 이 교구를 이용해 좀 더 특별한 교육을 진행해 보고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와 접목해 보았다.

먼저 3D 펜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QR코드로 동화를 감상하며, 스토리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었다. 다 같은 기본 도안이 주어졌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상상력과 개성을 살려 자신만의 과자집

을 완성했다.

좋아하는 곤충을 만들어 과자집 지붕에 매달기도 했고, 좋아하는 롤리폴리 색으로 과자집 벽을 장식하기도 하며 새롭게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꾸며 보았다.

3D 펜 교육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교육 자료를 옮기는 과정까지 다른 교육에 비해 수고와 힘이 배로 들지만, 김미경 서포터즈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노력이 아깝지 않다.”며 뿌듯한 소감을 말했다.

이미 3D 펜을 갖고 있거나 사용을 경험해 본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영상을 따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한 사용법 또한 다시 익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미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새롭게 일깨워 줄 수 있었다.

더 많은 기술과 교구가 발전되어, 아이들이 상상하는 세계를 마음껏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

강사 소감
한유리(충북)



3D 펜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기본 도안을 넘어서 자유롭게 과자집을 꾸미는 아이들을 보며 놀람기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멋진 작품들을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요. 즐거운 수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2

충북2

교육명	스마트하게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
강사/서포터즈	최경섭 / 에듀버스 방문형 과정
교육 개요	스마트폰 앱(당근마켓)을 이용한 중고 거래 교육

“거래 노하우까지 알려 주시니,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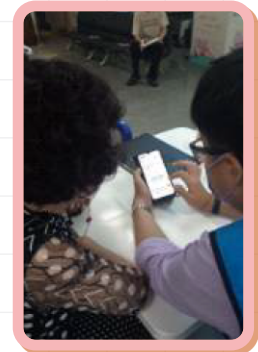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뜻을 가진 ‘당근마켓’ 앱 덕분에, 동네를 기반으로 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당근마켓은 사용자의 실제 거주 지역에서 이웃들과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고 지역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무엇보다 이 앱이 유용한 것은, 가까운 동네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착한 서비스를 노인층도 누릴 수 있도록 ‘중고거래 앱 사용법’에 초점을 맞춰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을 설정한 뒤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고,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거래가 성사 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어르신들에게 알려 드렸다. 물건을 구입하는



서포터즈 소감
최경섭(충북)

어르신들이 중고 거래 앱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앱 사용법만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 노하우까지 전수해 드렸으니, 성공적으로 거래를 성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 주신 교육생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것뿐만 아니라, 파는 방법 또한 익힐 수 있게 했다. 좋은 물건 찾는 법, 네고 잘하는 법, 눈길을 사로잡는 판매글 올리는 법 등 다양한 거래 팁까지 알려드리니 교육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또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거래 장소를 쉽게 찾아가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며, 교육생들이 실제 거래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왔다. 이제 노령의 교육생들도 중고거래를 통해 합리적 소비 활동과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의 매너온도가 따끈따끈하게 올라가길 응원하며 즐겁게 교육을 마무리했다.



“실전처럼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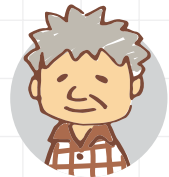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3

총복3

교육명	줌(Zoom)으로 화상 회의 운용하기
강사	최정민
교육 개요	화상 채팅 앱 줌(Zoom)의 기본 메뉴 기능 및 화상 회의 운용 교육

“배운 내용을 복습해서 줌(Zoom)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화상 채팅 앱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물론, 업무 관련 미팅, 그리고 사적 모임까지 줌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줌 사용이 낯설고 서툰 이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해, 비대면 사회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링크를 통해 미팅에 참여하기, 카메라와 마이크 켜고 끄기, 주화면 설정하기 등 앱의 메뉴별 기능을 살펴보고 연습해 보았다. 회의 내용을 바로바로 기록하는 등 간단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발견해 가며 교육생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다.



강사 소감
최정민(총복)

바쁜 삶을 쪼개어 교육에 참여해 주신 교육생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들을 활용해, 화상 미팅의 호스트가 되어 재미있고 즐거운 모임을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단순히 미팅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호스트가 되어 미팅을 주도하는 방법 또한 교육했다. 화상 미팅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필요한 기능도 익혔다.

그리고 실습을 열어 서로가 돌아가면서 30분씩 회의실을 열고 상대를 초대해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미팅의 호스트가 되어 본 교육생은 “게스트로 참여했을 때랑은 또 다른 경험

이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복습하겠다고 열띤 의지를 보였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알고 수동적으로 미팅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모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강사에게는 보람을, 교육생들에게는 소통의 큰 역량을 안겨 주었다.



“이제 친구들과 줌으로 만나 이야기하면서, 배운 내용들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4

충남

교육명	신나는 코딩 드론 체험!
강사/서포터즈	정윤옥 / 박지혜
교육 개요	엔트리를 이용한 프로그램 교육 및 코딩 실행, 드론 조작 및 기계 구조 체험



“코딩과 드론, 평소 해 볼 수 없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초·중·고 교육에서 코딩이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과목이 되었다. 엔트리 (Entry)란, 소프트웨어 교육을 누구나 쉽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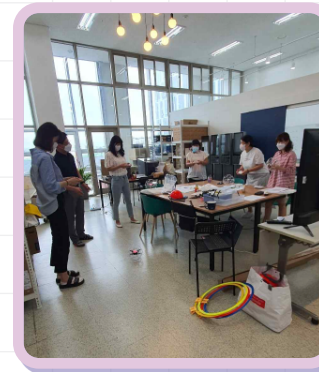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방과후 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사들이 엔트리를 이용해 코딩·드론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강사들의 역량을 향상 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이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코딩 프로그램을 짜고 드론을 조종하는 체험을 통해 디지털 수업에 관한 관심을 향상하고 고취시킬 수 있었다.



서포터즈 소감
박지혜(충남)

코딩과 드론에 대해 강사님께서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육생 분들 또한 이해가 빠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프로그래밍한 드론을 날릴 때 무척 신기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론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교육이었습니다.

‘코딩’ 또는 ‘드론’이 핫한 키워드라고는 하지만, 관련 업종에 있거나,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보통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혹은 이론만 알고,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코딩과 드론을 처음 배우게 된 교육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고 말했고, 코딩만 경험해 봤던 교육생은 “드론 조종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코딩 경험을 살려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두 가지를 접목한 수업 방식에 만족을 표했다. 코로나19라는 공백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과후 강사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층 더 성장한 교육생들의 역량이 방과후 아이들에게 새롭게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향상된 것 같아 무척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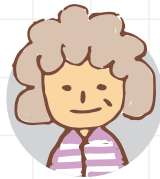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5

충남2

교육명	코로나 극복 스마트한 건강 관리
강사/서포터즈	정주희 / 이세라
교육 개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및 병원 진료 서비스 사용 교육

“잔여백신 예약하는 방법을
자식들한테 알려 주려고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시작되었다. 읍면리에 해당하는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을 실행했다. 고령층을 우선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육생들 대부분이 백신을 이미 맞은 상태였다. ‘그런 어르신들께 접종 독려 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교육생들은 하나같이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유를 들어 보니, ‘자녀나 손주들에게 백신 접종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무언가를 알려 줄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교육생들을 보며 깨달았다.” 고 정주희 강사는 말했다. 오히려 자녀와 손주들이 맞지 못한 백신을 본인만 맞았다며 미안한 마음을 갖



서포터즈 소감
이세라(충남)

수업이 끝나자, 한 교육생이 자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잔여백신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뿌듯하게 이야기하는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없이 엄지를 척! 들어 드렸습니다.

고 있는 교육생들도 있었다. “우리 딸도 얼른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잔여백신 예약하는 법을 알려 줘야겠다.”고 말하며, 한 교육생은 노트에 내용을 꼼꼼히 적어 갔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교육 시간이었다. 더불어 백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며, 접종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QR코드로 접종 완료 사실을 식당이나 여러 시설에서 인증하는 방법 또한 연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교육생들이 남은 코로나19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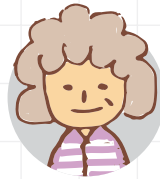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6

충남3

교육명	키오스크 세상 속으로
강사/서포터즈	우현 / 박미라
교육 개요	키오스크와 무인 서류발급기 사용 교육.

“기계만 보면 자리를 피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최근 주변을 둘러보면 키오스크 기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게에 들어가면 점원 대신 키오스크 기계가 메뉴를 띄워 주고, 병원에 가도 직원 대신 키오스크 기계로 접수와 수납이 이루어진다. 기기를 잘 다루는 젊은층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고령층은 기기를 다루는 것도 서툴고, 글자를 못 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머뭇거리다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주문·결제를 완수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본·초본 등 서류 발급받는 방법을 실습해 보았다. 교육생들은 기계를 터치하는 것 자체도 생소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터치로 잠긴 화면을 풀고, 메뉴를 살펴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지도했다. 그리



서포터즈 소감
박미라(충남)

항상 고령층 교육을 할 때 ‘잘 받아들이고 따라오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교육생분들은 배우려는 의지와 에너지가 매우 강해서, 가르쳐 드리는 기쁨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생겨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고 연습을 반복한 끝에, 교육생들은 스스로 결재까지 해낼 수 있었다. 또한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때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줄로만 알고 계셨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주변 은행이나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더니,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생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교육 내용을 종이 위에 적어 달라는 분, 알고 싶은 것들을 따로 적어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키오스크부터 무인발급기까지, 노령 교육생들에게 ‘검지의 힘’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들 내외와 주말에 외식을 나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7

전북1

교육명	새로운 꿈을 위해! 드론의 이해와 활용
강사	박선하
교육 개요	드론의 종류와 원리 이해, 관련 법규 교육 및 조종 시뮬레이션



“드론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엔지니어, 앱 개발자, IT기술직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드론 관련 직종 또한 새롭게 떠오르며, 많은 아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드론은 맨 처음 군용 정찰기로 개발되었으나, 꽤 오랜 시간 일부 매니아층의 장난감으로만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과 접목해 촬영, 배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 드론처럼, 기술과 발전과 변화된 시선이 새 날개가 되어 주길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경찰의 선도를 받고 있거나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는 그룹 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기 위해, 드론 이론 교육과 조종 시뮬레이



강사 소감
박선하(충남)

아이들이 집중해서 이론 수업을 듣고, 또 흥미롭게 실습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이 교육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더 높이 드론을 날리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션 교육을 진행했다.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때때로 관심보다 앞선 편견으로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이번 교육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드론이란?’으로 시작하는 정의부터 역사와 원리, 종류, 관련 법규까지 찬찬히 배우면서 새롭게 드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직접 조종에 도전해 보며, 기술이 이루어 낸 짜릿한 비행을 손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 이후로, 드론1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할 예정이다.

사회의 변두리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이번 교육은 드론이라는 발전한 기술을 경험하게 하며, 자격증 취득이라는 가까운 목표를 심어 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열심히 배워서 꼭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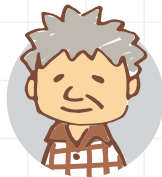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8

전북2

교육명	폰으로 쉽게 찾는 일자리
강사/서포터즈	박찬용 / 장애순
교육 개요	구인구직 앱 설치 및 일자리 검색 교육

“앱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일자리 찾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역, 직종, 급여 등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두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구인공고들을 척척 찾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컴퓨터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열어 볼 수 있을 때 더더욱 편리하다. 특별히 시니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수백 수천 개의 직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인구직 앱 사용법을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구인구직 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베틀시장워크넷 이 두 가지 앱 서비스를 우선으로 배워 보기로 했다. 앱에서 작성한 이력서는 한 번 작



강사 소감
박찬용(전북)

요즘 코로나19로 일자리도 줄었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 교육생들이 여기저기 발품 팔지 않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를 쉽게 찾았다며 기뻐하는 수강생들을 보며,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성해 두면 수정도, 제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역으로 기업에서 내 이력서를 열람하여 취업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렸다. 교육생들 각자 일하고자 하는 지역과 직종을 선택해 일자리를 검색해 보았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었다니, 놀랍네요.” 한 교육생은 이렇게 말하며, 쉬지 않고 화면 목록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커리어넷에 들어가 진로심리 검사, 진로 상담 신청, 진로 정보 탐색 등 다양한 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일자리를 선택하기 전에 교육생에게 맞는 직업과 직종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안내해 드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률이 높아진 가운데,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교육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취업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렵고 힘드니, 취업 자리를 찾는 일만큼은 이렇게라도 조금 쉬워졌으면 한다.



“강사님이 친절하게 강의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어요.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39

전북3

교육명	소상공인 PC 영상 제작 파워디렉터
강사/서포터즈	함기훈 / 윤은숙
교육 개요	파워디렉터 프로그램 설치 및 기능 교육, 홍보용 영상 제작 실습

“영상 제작은 전문가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TV에 나오는 뉴스, 길거리의 수많은 광고 스크린,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 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유튜브 재생 목록까지. 우리의 하루는 영상으로 시작해 영상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데도, 정작 영상을 '제작' 하는 일에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홍보에 쓰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스펙이 될 수 있다. 꼭 업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자기PR이나 일상을 기록하는 등 영상 제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유려하게 편집해 줄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드론운영팀을 대상으로 '파워디렉터'를 다뤄 보는 교육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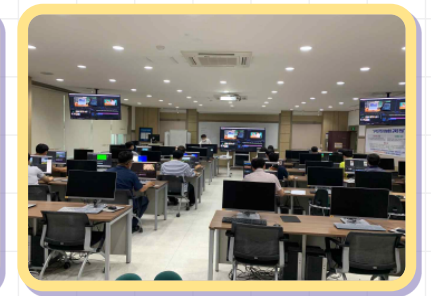


강사 소감
함기훈(전북)

'영상 제작'이 어렵다는 편견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들에게는 간단한 스킬로도, 멋진 영상을 똑똑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반납하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 주신 교육생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했다. '파워디렉터'는 프로그가 아닌 아마추어들도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은 각자 PC에 '파워디렉터'를 설치하고 기능을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며, 영상 편집의 첫 걸음 땀 수 있었다. 교육생들은 영상을 이어 붙이고, 영상의 색감을 보정했다. 자신의 개성을 담아 재미있는 자막까지 넣어 보며 그럴듯한 영상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되었던 교육이라 교육생들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전북지방경찰청 드론운영팀에서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을 보여 주었다. "이러다 모두 유튜버가 되는 것 아니냐?"며 농담 반, 진담 반의 한마디가 모두를 웃기기도 했다. 영상 제작이 더 이상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 누구든 찍고 누구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영상을 편집하며 '초'라는 디테일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0

전남

교육명	유튜브 홍보 전략 익히기
강사/서포터즈	최기수 / 김연희
교육 개요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 방법 교육



“등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이용자 4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MZ세대들의 놀이터로 알려진 유튜브에서 50대 이상의 비중이 10~20대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게 되면서, 유튜브에서 중장년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세밀한 알고리즘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소비하는 것은 물론, 직접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중장년층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65세 교육생은 평소 취미로 등산을 즐기곤 했다. 교육생은 산에 오를 때마다 항상 카메라로 산의 모습을 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보기엔 아깝더라고요.” 자신의 등산로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



강사 소감
최기수(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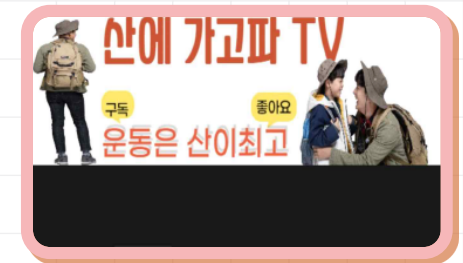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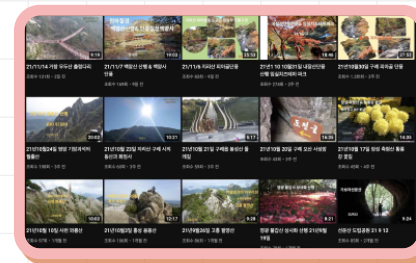
중장년 교육생들이 나이에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싶은지,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 싶단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번 교육을 알게 되어 ‘유튜버’라는 새로운 꿈을 펼치게 되었다.

평소 컴퓨터를 다루 본 적이 없었지만, 기초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 가며 유튜브 채널 개설과 운영 방법을 익혔다. 짝은 영상들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으며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결과, 지금은 무려 170명의 구독자를 가진 ‘등산 유튜버’가 되었다.

영상 편집 기술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등산 일기와 풍경을 담기엔 충분했다. 오히려 더 생생하고 담백하게 산을 담을 수 있었다. 스스로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고,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생은 무척이나 뿌듯해했다.

유튜버라는 플랫폼 속에서 단순히 영상을 감상하는 구독자가 아닌, 콘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보여 주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가 다양한 국적, 여러 층의 세대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취미를 얻고 삶의 활력소를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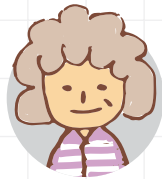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1

전남2

교육명	시장 상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강사	장수정
교육 개요	버스 앱, 금융 앱 등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시장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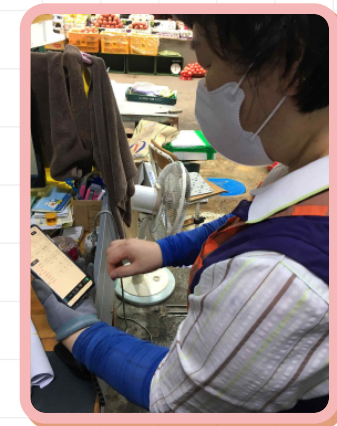
여수 교동시장을 찾아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배움터에 나와 배우고 싶지만, 생업을 지고 있어 방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구경을 하던 손님들도 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더욱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상인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은행 어플과 주식증권 어플이었다. 간단한 계좌 이체조차도 바쁜 장사 시간을 쪼개어, 직접 은행에 가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앱을 설치하고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법을 알려 드리니, “이렇게 시간을 아꼈네. 돈만 더 벌면 되겠어!” 말하며 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포터즈 소감
장수정(전남)

정해진 커리큘럼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어려웠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끊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지고 있는 생업 때문에 배움터에 오지 못했던 상인들처럼, 방문이 어려운 교육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으로 오셨던 교육생은 지도 보는 방법을 물어 왔다.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도 길 찾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섭다는 것이었다.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해 지도 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버스 노선과 도착 시간 확인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니, “이제 어디든 찾아가갈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다. 교육생들의 일터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다 보니,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지금 물어보지 언제 물어봐?” 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쏟아내는 상인과 손님들의 모습을 보며, 찾아가는 교실이 얼마나 필요한지 체감했다. 이날 만큼은 디지털배움터가 교동시장의 반가운 손님이 되어, 상인들의 답답함을 풀어 주며 큰 힘을 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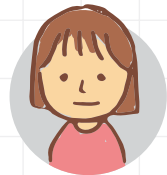


“이제 매번 은행에 안 가도 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2

전남3

교육명	언제나 열려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
강사/서포터즈	김은선 / 정순정
교육 개요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헬프데스크 이용 사례 및 이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교육



“헬프데스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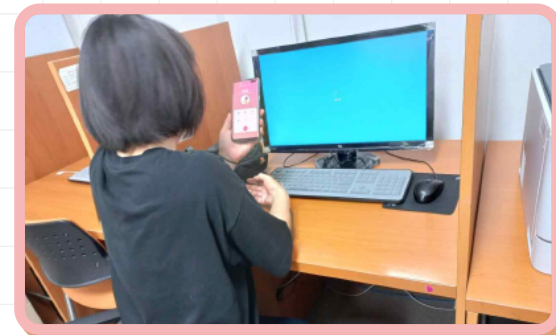
여수 미평 주민 센터에서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에서 창구를 열어 두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같은 간단한 민원 업무에서부터, 스마트폰 사용, 재난지원금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 등 민원 외 업무까지 친절히 안내하며 주민들을 돕고 있다. 헬프데스크에 한 이주 여성이 찾아왔다. 여성은 자신의 필요를 또박또박 설명했다. 휴대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USB에 옮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강사와 서포터즈는 컴퓨터로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증서 옮기는 과정을 함께 진행



서포터즈 소감
정순정(전남)

이주 여성분의 “저 아무것도 몰라요.”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말하는 ‘몰라요’와는 전혀 다른 언어 같았지요. 그 절박한 상황을 돕고 싶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센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센터 이름처럼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되시길 바랍니다.

해 드렸다. 그리고 나선, “이제 잘하실 수 있겠죠?”라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저 실은 아무것도 몰라요.”였다. 처음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말들은 모두 외워서 온 것이었다고 한다. 한국어를 말할 순 있어도, 읽고 이해하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은선 강사는 “진정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가까운 교육 센터의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도왔다. 여성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여기 오길 잘했다.”며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언어의 장벽과 더불어 낮은 문화와 제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헬프데스크와 디지털 교육은 언제나 열려 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3

경북

교육명	고령 운전자를 위한 디지털 교통 안전 교육
강사/서포터즈	배선 / 우미애
교육 개요	컴퓨터 사용이 서툰 고령자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해 다양한 교통 안전 수칙을 교육함

“처음 들어보는 ‘인강’,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보행자 사망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교통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해당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어기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등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가장 우선이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고령층 대상의 교통 안전 교육 또한 꼭 필요하다. 노인 보행자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령층 교육생들을 모집해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보행

자 사고 예방법과 횡단보도 안전 수칙, 야간 사고 예방법, 보행 중이나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법을 익히고 온라인 수료증을 받는 것까지가 수업의 과정이었다. 특별히 컴퓨터를 사용해 교육을 진행했는데, 간략한 컴퓨터 조작 방법 또한 알려드렸다. 처음 다루어 보는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일부 조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강사와 서포터즈가 세심히 도와 드렸으며, 교육생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해 드렸다. 컴퓨터를 사용하니, 시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 교육생들 또한 교통 안전은 물론 컴퓨터 다루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고령의 교육생들이 교통 안전 수칙을 익히고, 디지털 역량까지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교육 시간이었다.

서포터즈 소감
우미애(경북)



교통 안전 수칙도, 컴퓨터 사용법도 우리에겐 당연하고 쉬운 것들인데 하나하나 새롭게 익혀 가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너무 불친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배움에도 큰 성취를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더 많은 교육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법을 같이 알려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른 온라인 강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4

경북2

교육명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타자 기초 교육
강사	이철행
교육 개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성 및 편집 기능 교육

“배우면 배울수록 자식들과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작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던 교육생들이 이번엔 컴퓨터 다루기에 도전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 서핑과 프로그램을 다루기 전, 한글 자판을 제대로 사용하고 간단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기로 했다.

타자 연습으로 키보드 사용을 익힌 후, 한글 프로그램을 열었다. 복사 저장 등 기본 아이콘의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문단과 정렬을 바꾸는 법, 여백을 조절하는 법 등을 익혔다. 그림을 삽입하고, 표까지 넣어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마을신문’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작년 교육 때보다 더 활기가 느껴졌다.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고, 디지



강사 소감
이철행(경북)

어르신들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배운 내용을 자식 손주들에게 자랑하고, 영상 채팅이나 SNS로 더 친근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에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고 싶습니다.

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걷힌 분들이었기 때문인 듯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물어보실 수 있도록 편안한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교육생들이 이토록 열심히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데에는, 자기계발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엔 자식과 손주와 더 자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함이었다.

한 교육생은 “덕분에 자식들과 대화가 된다.”며,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

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교육생들의 모습을 볼 때 이철행 강사 또한 “정말 장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배움터 교육은 심화 단계까지 발전해 있으며,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거리감을 좁혀 보다 폭넓은 소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소통이란 걸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5

경북3

교육명 더 넓은 세상으로! 인터넷 초보 탈출

강사/서포터즈 김영민 / 배승혜

교육 개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 전자 서류 발급, 메일 보내기와 가치표 구매 방법 교육 및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클릭하는 제 손이 다 기특하네요.”

기차역 탑승표 발권 창구에 가면 길게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을 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옆 티켓 발급기 앞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 보통 젊은이들 이라면, 이곳에 들릴 필요도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미 예매를 마친 채 역에도 도착했을 것이다. 주민 센터에 가도 풍경은 다르지 않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노인들은 직접 와서 애써 기다려 가며 받아가곤 한다. 창구에선 천 원을 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다. 단지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몰라서, 노인들이 길에 버려야 하는 시간과 수고 그리고 돈은 적지 않다.



강사 소감
김영민(경북)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수업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 번 설명해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배운 걸 해냈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매년 노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교육생들에게 배움을 통해 느끼는 기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몰라서’ 감수해야 하는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수업을 열었다. 위와 같은 일들을 매번 경험해야 했던 교육생들은 “인터넷으로 된다는 거 알지.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쉽나...” 머뭇거렸지만, 하나 하나 알려 드릴 때마다 “정말 되네.,” “내가 해도 진짜 되네.” 하면서 자신의 손을 기특해하였다.

컴퓨터를 처음 다루는 게 낯설었을 텐데, 교육생들은 계속 질문하며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영민 강사는 “교육생들께선 질문을 반복하는 걸 미안해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더 열심히 알려 드릴 수 있었지요.”라고 말하며 따뜻한 열정을 밝혔다. 이제 어르신들은 영양제 가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유튜브로 듣고, 키오스크를 당당하게 사용하며, 창구에 가지 않고도 민원 서류와 가치표를 손에 짚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길에 버려질 뻔했던 시간과 수고를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상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친절히 알려 주신 강사님 덕분입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6

경남

교육명

찾아가는 디지털 버스

교육 개요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사용 교육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 주시니, 열심히 배울 수밖에요.”

많은 공공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며 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소외 계층의 일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열려 있는 문조차도 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버스를 운행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음식점과 병원에 키오스크 기기가 자리 잡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께서는 “지팡이 짚고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웬 낯선 기계가 딱 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했다. 음식점은 피할 수 있다 해도 병원 진료를 건너뛸 순 없었다. “접수 자리에 사람이 없길래 한참 기다렸어요. 알고 보니 기계로 접수를 해

야 했던 거더라고요.”라고 말하며, 불편함을 털어놓았다.

키오스크로 인해 이들의 행동반경이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실물 키오스크 기계로 사용법을 익히고 연습해 볼 수 있게 했다. 음식점, 병원, 기차표 예매까지 다양한 장소와 서비스에 맞춘 사용법을 설명해 드렸다. 처음엔 손으로 터치하는 것조차도 어색해하셨는데,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차츰 적응할 수 있게 됐다. “무서운 기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편하네!” 하시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 주셨고, “이 큰 기계를 싣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강사와 서포터즈는 물론, 버스에게까지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다. 똑똑 두드렸을 때 활짝 열렸던 문처럼, 어르신들에게 가로막혀 있던 디지털 세상의 문도 차차 열리길 기대한다.



서포터즈 소감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보며, 찾아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집을 찾아가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번에 가르쳐 드린 것들 알차고 유용하게 써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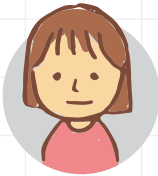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7

경남2

교육명 디지털 적응 발판을 위한 다문화 여성 문화 발표회
교육개요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 교육 실시 및 취업 지원교육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나’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이들의 적응을 돕고,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생들을 도우려면, 교육생들에 대해 먼저 알아야 했다. 연령, 직업, 학력, 결혼 기간, 국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를 통해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 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매니저, 옷가게 직원, 보육 교사 등 자신이 일했던 분야와 재능을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어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언어’였다. 언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적응도 쉽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익힐 시간이 짧았던 교육생들은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센터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을 연결해 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어 기뻐요.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연습하면 돼요.”라고 말하며 교육생은 열의를 보였다.

그 외, 스마트폰 사용법과 구인구직 앱을 이용한 일자리 검색 방법들을 교육하며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서포터즈 소감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교육생들이었지만, 겪고 있는 고충들은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다독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교육 자리에 혼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가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열정 계속 불태워서, 한국어도 척척, 취업도 척척 해내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8

경남3

교육명	섬마을 코딩 교육
교육 개요	섬마을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코딩 이론 교육 및 로봇·드론 조작 실습 진행

“코딩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프로그래밍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초등 교과 과목에도 들어갈 만큼,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코딩 공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다양한 교구와 학원 등을 통해 코딩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섬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처음 접한 코딩이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스크래치가 무엇인지, 파이썬이 무엇인지, 이론으로 접하는 코딩은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 또한 부족해 학습 환경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디지털 교육 격차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강사와 서포터즈가 바다 건너 교실을 찾았다. 전교생이 스무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다. 그중 고학년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해 주었으며, “우와, 우리 정말 드론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며 반짝반짝한 눈을 보여 주었다.

강사는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이들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아이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코딩인 비노 로봇과 드론을 이용하여 코딩의 원리부터 활용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

자신이 직접 코딩한 드론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아이는 “코딩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 인재로서,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강사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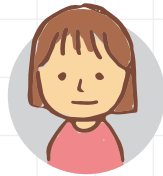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알려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수업을 준비했는데, 열심히 로봇과 드론을 조작하는 아이들을 보니 성공한 듯합니다. 이곳까지의 발걸음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즐겁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49

제주1

교육명	세상을 바꾸는 가상 현실, 메타버스 VR 제주 관광 체험
강사	김영주
교육 개요	코딩 학습을 통한 VR 제작 및 체험, 3D로 구현된 제주 관광지 탐방



“가족과 함께 가상 세계를 경험했어요.”

가상 현실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가상 현실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공존하는 세계가 되었다. 이미 상용화된 디바이스와 콘텐츠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는 가상 세계는 더욱 더 특별했다.

추석맞이 특강을 통해 교육생들이 직접, 가상 현실 세계 속에 제주 관광지를 구현해 보도록 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관광 포인트와 사회적 이슈 등을 자유롭게 작품에 녹여 내었으며, 역할 놀이도 해 보고, 만든 작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가족 단위로 진행했던 이번 수업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상 현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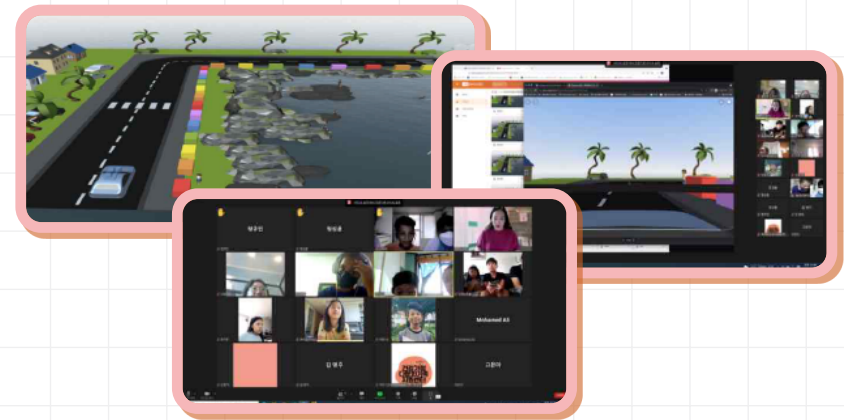
강사 소감
김영주(제주)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의 경험이 결여된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상 세계를 통해 함께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어 뿌듯합니다.

호기심을 가지며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 주었다.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을 디지털상의 비트 세계로 구현해 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특히나 빛을 발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자리였기 때문에, 동등히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며, 성취감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한 어머니는 “덕분에,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현실에서 어려웠던 일도 가상 세계에선 쉽게 이루어지곤 한다.

또 다른 아버지는 “아이에게만 배우라고 말할 게 아니다. 이렇게 같이 배울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 기술에 어른도 아이도, 함께 발맞춰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



“직접 만든 제주도를 엄마, 아با와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50

제주2

교육명 이곳이 바로, 스마트 아일랜드
강사/서포터즈 고다경 외 6명 / 강윤영 외 2명
교육 개요 가파도와 마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키오스크, 백신 예약, 영상 통화 교육



“매일매일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가파도와 마라도의 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진행했다. 육지에서 먼 농어촌 섬마을일수록, 디지털 격차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육지나 제주시에 사는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이들에게 쉽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 소식을 전해 줄 메시지가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장 먼저 알려 드렸다.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법, 안심코드 사용법, 백신 신청 방법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교육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생업을 지고 있는 분들이기에, 가게를 비울 수 없어 아쉬워하는 상인들에게는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맞춤 교실을 열어 드렸다.



강사 소감
고다경(제주)

육지에 사는 자식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 비로소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섬마을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나마 어르신들께 가로막힌 바다의 거리를 좁혀 드릴 수 있어 기뻐합니다.

터치펜을 선물하여 몇 가지 기능을 가르쳐 드렸더니, “어렵지도 않은데 여태 모르고 살았다.”며 어르신께선 연신 고마워했다. 제주시에 사는 딸과 영상 통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현장에 있는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르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손녀 사진을 포토프린터기로 출력해 드리는 깜짝 선물도 준비했다. 사진을 받아 든 어르신께서는 “스마트폰만 배운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도 알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하필 교육 날 곳은 날씨가 이동이 쉽지 않았는데, 강사와 서포터즈들은 빗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그저 한 분께라도 더 알려 드리고 싶었다.”고 말하는 강사와 서포터즈들의 진심이 가파도와 마라도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었다.



“이렇게 먼 섬마을까지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배움, 귀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우수 사례

51

제주3

교육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매출 쑥쑥!
강사/서포터즈	전인자 / 김경미
교육 개요	온라인 판매의 이해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매장 관리 방법 및 마케팅 교육



“온라인 주문이 150건이나 들어왔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 소비로 전환되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에게도 새로운 판매 전략이 필요해졌다. 바로 온라인스토어를 열어 농작물 수확부터 포장·판매까지, 농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농장주의 입장에서 예전보다 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매량이 월등히 늘어나면서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 또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에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창업’이란 단어가 아직, 낯설고 멀기만 한 농장주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친절한 디지털배움터가 필요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고, 감귤을 비롯한 황금향, 레드



강사 소감
전인자(제주)

교육 후 이렇게 금방 좋은 소식이 들려 오니, 제가 다 기쁘고 힘이 납니다. 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만큼, 교육생 모두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향 등을 직접 재배하고 있는 농사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평생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이렇게 컴퓨터를 배우게 되는 날도 다 있다.”며 한 교육생께서는 머쓱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평생을 부지런히 일해 오신 분들이라, 배움에도 게으름이 없었다.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고, 배운 내용을 잊어 버리지 않기 위해 꼼꼼히 메모를 하는 분들도 계셨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열정 덕분에 결실도 빨리 찾아왔다. 온라인스토어를 연 지 며칠 만에 60건, 150건씩 판매가 들어왔다는 교육생의 소식이었다.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포장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기쁨 어린 투정도 들을 수 있었다. 한해의 농사 끝에 맺은 열매 만큼이나 값진, 배움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스마트스토어에 직접 상품도 등록하고, 주문도 받았어요. 새로운 재미를 알아 가고 있습니다.”

내 곁에 든든한 디지털배움터 - 2021년 디지털배움터 이야기

발행일 : 2022년 2월

발행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 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제 작 : KMAC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례집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가공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배움터